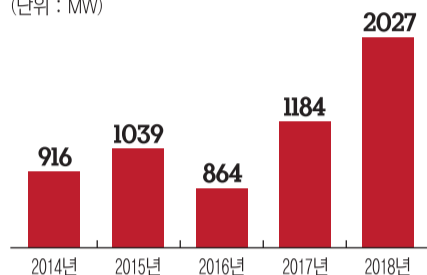


## 中 저가공세에 폐업 토종 태양광의 ‘눈물’

### 스페셜 리포트

한국 태양광 보급용량 2027MW  
4년 만에 120% 이상 급성장  
중국산 모듈 비율 33.4% 차지  
업계 “국내 기업 보호정책 부족”

### 태양광 보급 용량 (단위 : MW)



저가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우리나라 토종 태양광업계를 무너 뜨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과실을 중국 기업들만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시장에서마저 중국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토종 태양광 업체들은 존폐의 기로에 넘어 이미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용량은 2027MW로 조사됐다. 2014년 보급용량이 916MW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120%가 넘는 급성장을 한 것이다. 국내 시장은 △2015년 1039MW △2016년 864MW △2017년 1184MW로 상승일로에 있다.

이 같은 태양광 시장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누적 기준)은 2030년까지 36.5GW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 태양광 발전 규모는 5.7GW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태양광 시장이 덩치를 키우는 것과 달리 역주행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회사는 2015년 127개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7년에는 118개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폴리실리콘 업체는 7개에서 3개로, 태양광모듈 업체는 48개에서 34개로 줄어들었다. 고용 인원 역시 8698명에서 7522명으로 축소됐다. 매출액은 7조 5637억 원에서 6조 435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내수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의 처참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내수 매출액은 2015년 2조 2975억 원에서 2년 만에 1조 9331억 원으로 15%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업체들의 빠른 시장 침투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산 비율은 2014년 16.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 기준 33.4%까지 치솟았다. 중국 태양광 발전소 신규 증설이 제한되고 보조금이 축소되는 등 자국 시장 공략에 제동 걸린 중국 업체들이 성장세가 가파른 우리나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는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는데 정부의 국내 기업 보호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태양광 시장을 키우면서 국내 업체들의 성장과 고용, 투자 등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해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파란 하늘 아래 고궁 나들이

24일 휴일을 맞아 한복을 차려입고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봄을 만끽하고 있다. 고궁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아름답다. 연합뉴스

## 통계 안잡히는 ‘취약 근로자’ 최소 180만명

대부분 단기 알바·일용직 근로자  
IMF “사회안전망 확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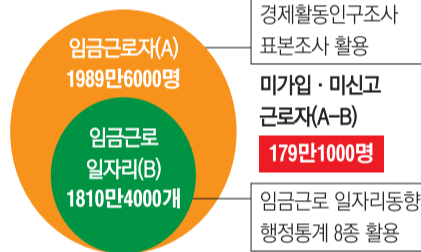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과 납세자료로 파악이 안되거나 월 근로일수가 3주 이하인 불안전 취업자가 최소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 4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임금근로자 수(1989만 6000명)보다 179만 1000개 적은 규모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는 표본조사로 집계된 전체 임금근로자인데 반해, 임금근로 일자리는 사회보험·납세자료 등 8종의 행정통계로 파악된 일자리 수다. 따라서 두 수치의 차이는 아르바이트 등 행정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단 179만 1000명이 모두 아르바이트 등

### 임금근로자 및 임금근로 일자리 수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월 근로일수에 따른 가중치 적용. 근로일수가 15일 미만이면 0.5개로 집계. ※출처: 통계청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금근로 일자리에 는 근로일수에 따른 가중치가 반영돼서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 달 중 보름만 일했다면 0.5개, 1주일만 일했다면 0.25개로 집계 됐다”며 “가중치가 적용된 대상 중에는 단 기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을 모두 1로 계산하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 4000개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가 늘면 경제활동인구 조사상 임금근로자와 차이도 크게 줄어든

다. 하지만 미신고·미가입 임금근로자가 줄어드는 것일 뿐,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소하는 건 아니다. 근로일수가 월 15일인 근로자는 가중치 적용 시 2명이 모여 완전 취업자 1명이 되지만, 가중치를 없애면 미 신고·미가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인 불안전 취업자 2명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근로자는 1명 늘는 대신 불안전 취업자 2명이 생겨나 전체 취약계층 임금근로자는 늘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협의단은 12일 한국과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더 강화시켜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신한금융, 소그룹사 참여 ‘혁신금융위’ 출범

임직원 2000명 참여 초대형  
창업·벤처·중소 혁신성장 지원  
5년간 총 48조 규모 자금 공급



그룹, 리스크관리그룹, 영업추진 1·2그룹을 중심으로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등이 참여한다. 단장은 기업그룹장인 정만근 부행장이 맡는다. 4월 중으로 신한성

공두드림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괄담보제도 도입에 따른 유·무형 자산 담보 통합 신상품도 개발된다.

혁신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GIB 사업부 문장인 정운진 부사장을 중심으로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이 참여한다. 신한퓨처스랩을 통해 제2의 어니스트펀드, 파운트, 스몰티켓, 비주얼캐프 등 핀테크·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50개 기업에 250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5월 중에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이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신한

BNPP 창업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올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5250억 원 규모로 창업 벤처를 지원하는 재·간접펀드도 운용한다. 신한금융은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2조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대출 프로젝트를 더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은 그룹의 싱크탱크 조직인 미래전략연구소가 맡는다. 이성용 대표를 단장으로, 전략기획팀, 원 신한 전략팀, 디지털전략팀, 경영혁신팀 등 지주회사 16개 팀과 14개 그룹사 전략·디지털 담당 부서가 협업한다.

조 회장은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신한사의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본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객신사 기자 jinsan@

### 알림

## 제8회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수소차의 미래를 묻다



2019년 3월 28일(목)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이투데이가 제8회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미래 산업을 이끌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투데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수소차의 미래를 묻다: 미래 먹거리 수소 경제와 수소차 집중 해부’로 정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주호 메리츠증권증권 스몰캡팀장,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기업분석부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2팀장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산업 종목 전망과 함께 숨어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에 참석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3월 28일(목) 오후 4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 주최 이투데이 미디어
- 후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 문의 이투데이 사업부 (02) 799-2688

# “클라우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미래 기업 성패 좌우”

## 김영섭 LG CNS 대표, 클라우드 사업 전략

“2021년까지 아시아태평양 클라우드 시스템통합(SI)사업자 톱3에 진입하겠다.”

김영섭 LG CNS 대표는 22일 클라우드 사업 추진전략 기자간담회에서 “클라우드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며, 어떻게 선도를 나가느냐가 미래 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병행하는 전략이다.

우선 LG그룹의 클라우드 전환 및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제조, 통신, 서비스 등 계열사별 산업 특성과 사업구조를 고려한 전환 우선 순위에 따라 그룹 내 클라우드 전환을 순차적으로 확산해 LG전자, LG화학, LG디스



김영섭 LG CNS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클라우드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CNS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자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도 내놓는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종전에는 유통,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등 변동성이 크고 사용자 수에 민감한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지난해 대한항공이 대기업 최초로 전사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기로 하는 등 최근에는 국내 시장도 기업 차원의 도입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국가 보호기술이나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병행한다.

김 대표는 “지금 고객들도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채택하지 않으면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힘들다”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업과 국내 크고 작은 관련 기업들과도 협력을 우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람 기자 hura@

##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제대로 활용하려면 클라우드가 필수 LG계열사 클라우드 전환 주도… “2021년 아태시장 톱3 진입”

김 대표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LG CNS가 5년 내 LG계열사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90% 이상 전환하는 역할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플레이 등 LG계열사의 클라우드 전환율을 2023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LG계열사가 클라우드 기술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IT 신기술을 연구개발(R&D), 생산, 마케팅 등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연계해 고객 요구에 선제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비즈니스 구조를 준비한다.

LG계열사의 IT시스템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70% 이상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아시아태평양 클라우드 SI사업자 톱3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대규모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그룹사 차원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클라우드 관리 플

랫폼 ‘클라우드엑스퍼(CloudXper)’를 통해 LG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그룹 차원의 데이터 통합 및 수집,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마케팅, 생산-품질, 데이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서비스를 계열사들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 미래에셋벤처투자 임원들, 스톡옵션 수십억 ‘잭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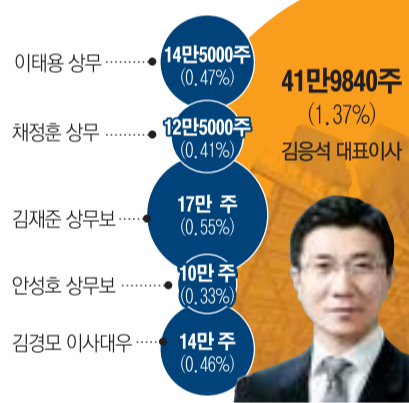
“임원 스톡옵션이 진짜 잭팟이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벤처캐피털(VC)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대거 부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회사 임원진은 상장 일주일 만에 수익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머쥐게 됐다. 신규 상장 기업이 임원진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금융회사가 이런 파격적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 ‘공모가 4500원’ 상장 후 상승세 일주일새 7000원대까지 올라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최대 주주로 지난해 말 현재 지분 72.55%를 보유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3800억 원 규모로 120개 VC 중 17위에 랭크됐다. 업계 최고 수준의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이지만, 창업투자사 운용 규모로는 10위권 밖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 미래에셋벤처투자 임원진 스톡옵션 행사 지분



회사는 이달 15일 코스닥에 입성했다. 발행주식 총수는 3066만7215주 규모다.

공모가는 4500원으로 상장 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주일 만에 7000원대를 찍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원들은 신이났다.

개인별 보유 지분은 △김영섭 대표이사 41만9840주 1.37% △이태용 상무 14만5000주 0.47% △채정훈 상무 12만5000주 0.41% △김재준 상무보 17만 주 0.55% △안성호 상무보 10만 주 0.33%

△김경모 이사대우 14만 주 0.46% 등이 다. 이날 증가 7190원 기준, 개인별로 수익-수십억 원 상당 규모다. 김대표의 경우 아직 행사하지 않은 추가 물량이 수만 주가량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아닌 기존 금융회사에서 수익 대비 이렇게 높은 비율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다른 독립 창투사와는 달리 초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라는 모회사가 있어 부도 위험이 거의 없었다. 2017년 연결기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당기순이익은 63억 원이다. 임원진이 인센티브를 회사 전체 이익과 비슷하게 가져간 셈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본 광고는 제6회 K-SURE 대학생 광고공모전 금상 수상작 (국민대학교 김유진)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수출이 가는 곳마다 함께합니다.

세계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K-SURE가 함께 하겠습니다.

# “정부도 싼맛에 중국산 찾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겠나”

## ‘토종 태양광 산업’ 먹구름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품질 때문이 아니라 중국기업들의 ‘저가공세’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먹구름 잡기식 정부 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체감 안 되는 정부 대책에 ‘한숨’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늘었지만 단가 하락 등으로 산업 생태계 여건은 어려워진 것으로 안다”며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운송·운영 등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사해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정책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도입되면 태양광 기업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배출이 많은 외국산을 걸러내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최저효율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을 갖춘 태양광 모듈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효율의 국산 제품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체감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아니고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태양광 프로젝트 시공사에 일임 단가만 좇아 국내산 외면... 줄도산 위기 해외서는 ‘세이프가드’로 자국산업 보호 정부 역할 시급한데 뜬구름 잡는 대책만

### 해외규제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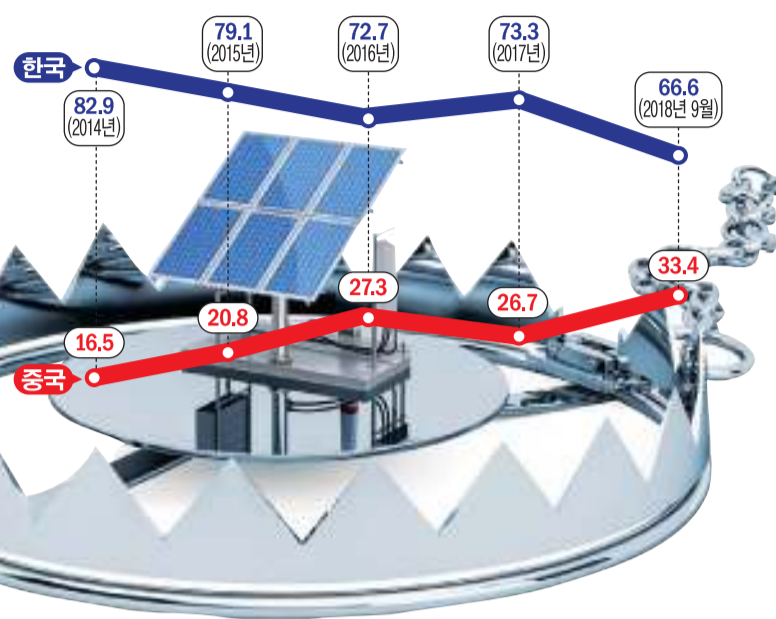
최저수입가격제한	유럽연합(2018년 9월 폐지)
수입물량제한	유럽연합, 미국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미국, 인도
자국산 부품 요구	이탈리아, 프랑스 등

한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이미 중국산과 경쟁조차 못 해보고 밀려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대책은 우리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가격’만 보는 정부·시공사 = 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시공사에 모든 걸 맡겨 부속품들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국내 시공사 역시 단가만을 생각해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암 태양광 발전소,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 등 다수의 국내 프로젝트들이 중국산 모듈 사용을 검토 중이다. 이들

RPS 대상 최근 10년간 태양광 모듈(패널)의 국산-중국산 점유율 (단위: %)



사업자가 중국산 모듈 사용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국산 모듈을 납품받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계 모듈 기업들이 글로벌 1-3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뜻

아니겠나”고 말했다.

◇자국 산업 보호하는 글로벌 흐름 따라야 = 현재 미국은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자국산 부품을 요구하는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 역시 수입

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는 국내산 태양광 제품을 활용할 경우 정책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 및 공공조달·입찰 시 기술 규격서나 공모서에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면 입찰 평가에 가점을 주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사업시에는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면 REC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국내산 모듈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비관세장벽을 적정하게 이용해 국가간 제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대비 품질 경쟁력이 높은 편인 모듈에 정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국내 모듈 제조업뿐 아니라 기타 소재 사업 투자 확대, 기술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비용 상승보다 자국 산업 보호 효과의 실익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변호선 기자 hsbun@

## 중국산, 국내 대기업 이름 달고 ‘불티’ 토종은 할인·AS 해준다 해도 안 팔려

### 재고 넘쳐나는 중소 모듈업체

“태양광 모듈 재고가 넘쳐서 주차장까지 나왔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 원이었는데, 중국산 가격으로라도 팔고 싶지만 정부나 대형 시공사나 산다는 곳은 없습니다.”

19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JSPV의 제2공장에 들어서자 주차장을 가득 채운 모듈이 먼저 눈에 띄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JSPV 제2공장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 재고품이 쌓여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이날 만난 이정현 JSPV 회장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밀려오면서 오히려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 밀려 중소기업이 30개 이상 문을 닫았다”며 “대기업도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모듈 제조 중소기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술도 우위에 있고 가격마저도 중국산에 맞먹 팔려고 해도 경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탄탄했다.

정부에서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

그는 “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시공사가 국내 대기업이지만 중국산 모듈을 쓴다고 한다”며 “(해당 지자체가) ‘한국산 써달라’ 한마디만 하거나 국산인지 아닌지만 표기하라고만 해도 국산 제품을 쓰는 시공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회장은 중국산 제품의 애프터서비스(AS) 등 사후 대책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000억 원가량 수입한

BMW의 AS센터가 400여 개이지만, 1조 5000억 원을 수입한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의 AS센터는 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국내 대기업의 이름을 붙여 들어온다. 일반 소비자들은 중국산 모듈에 대한 인식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 주택용 태양광용 중국산 모듈 중 취득한 인증대로 만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5년 뒤부터 모듈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느끼고 AS를 하려고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중국산 범람 속에서 중소기업체의 생존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이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하나를 생존시켜서 중소기업 30개를 대체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업 상생을 해야 고용창출이나 기업의 선진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충남)=김유진 기자 eugene@

## LS, 세계의 미래를 스마트에너지로 밝힙니다

LS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이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스마트빌딩시스템 (BEMS)

DT 솔루션 (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

스마트공장시스템 (Smart Factory & FEMS)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마이크로 그리드 (Micro Grid)

태양광 발전 원스톱 솔루션 (One Stop Solution)

FUTURING SMART ENERGY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주)LS | LS전선 | LS산전 | LS-Nikko동계전 | LS엠트론 | LS글로벌 | LS아이앤디 | LS빌드윈 | LS메탈 | LS사우타 | LS메카피온 | LS오토모티브 | LS네트웍스

# 간간해진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지연제출 기업 속출

## 외부감사법 개정, 영향은...

결산시즌을 맞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에 이어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는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외부감사법이 적용돼 회계감사 기준이 과거에 비해 간간해진 영향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2일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2곳(코스피 4곳·코스닥 18곳)에 달했다.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풀루스바이오 팜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

###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현황

코스피	4	의견한정 : 금호산업, 아시아나, 풀루스바이오팜 의견거절 : 신한
코스닥	18	의견한정 : 영신금융, 셀바스헬스케어 의견거절 : 지투하이소닉, 캔서룸, 케어젠, EMM, 에스마크, 에이씨티, 데코앤이, 크로바하이텍, 코다코, 에프티이앤이, 포스링크, 솔트웍스, 지와이커머스, 파티게임즈, 라이트론, KD건설

###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현황

코스피	12
코스닥	37
코넥스	9

\*22일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 건설사 신한 의견거절·아시아나 한정 등 '비적정' 22곳 보고서 제출시한 넘긴 기업도 58곳 '회계감사 대란' 비적정 의견 받으면 주식 거래 정지 투자자 피해 우려

절을,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도 내지 못한 기업이 코스피 12곳, 코스닥 37

곳, 코넥스 9곳 등 총 58곳에 달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예년보다 더 많은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보고서의 지연 제출은 통상 기업이 감사인에게 관련 재무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 간에 의견 상충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 중 비적정 감사의견이 무더기로 나올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살펴본 뒤에 이에 대한 의견을 담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기주주총회에 7거래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개정 외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게 해 한 회계사의 감사 결과가 추후 다른 회계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회계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전에 없이 간간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될 만큼 중대한 하자로 간주했지만 20일 금융위원회의 상장규정 개정으로 기업들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검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그대로여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을 때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전까지 매매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외감법' 달라진 네 가지

# 표준감사시간·과징금...늘어난 의무에 애타는 상장사들

## 주기적인 감사인 교체 의무화 전년비 2배 감사시간 투입 등 상장사 회계관리 책임 늘어

올해 '감사 대란' 원인으로 지목된 신(新) 외부감사법은 회계 감사법인의 감사 강화와 상장사의 회계 책임감 제고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크게 네 가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처음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평가기준 △과징금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신외감법 신설 조항

#### 표준감사시간 (단위: 시간)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5조	3,770	4,300	3,410
100조	14,040	15,980	12,690
300조	22,730	25,880	20,540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연결 기준 기업규모 5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를 강화했다. 규정이 늘면서 상장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증가했고 감사인의 심사 기간도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이다. 한국공인회계사는 최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표준감사 시간표를 발표했다. 감사인은 지

### 과징금 규정

대상	내용	과징금
상장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20% 이내
	회계처리기준 위반 방조한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	회계감사기준 위반 감사보고서 작성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 이내

난해보다 최대 2배 가까운 감사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감사인 평가기준도 신설됐다. 감사법인은 구체적인 감사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종전에 작성한 감사보수, 시간,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했

는지를 사후에 평가 받는다.

상장사의 회계 관리 책임도 늘었다. 이전에는 회계 담당자가 회계 정보를 공시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와 감사인에게만 보고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회계 담당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

야 한다. 회계 담당자의 회계 경력을 공시해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위반 금액의 20% 이하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 회계 관련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도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이라며 "상장폐지 사유 해소 위해 개선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재검사를 허용하는 등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h point

##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與 주도 경제민주화법 63개... 공정위법 53·상법 8개

## 20대 국회 경제법안 분석 대부분 '대기업 압박' 법안들 야당 반대로 조기처리 난망 여 '일부 개정' 선회할 수도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60건 넘게 제출됐다. 이 중 입법에 반영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8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53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 2건 등 총 63개였다.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대표 법안이다. 주로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총선 직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퉀 발의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8건이다. 법 개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회계사 출신의 법사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채 의원이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내용

### 경제민주화 법안 63건 발의

#### 상법 개정안 8건

-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 견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 2017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 내걸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건 제출, 법 개정에서 가장 적극적

####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법안 2건

-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사 건전성 관리
- 이철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법안 발의

#### 공정거래법 개정안 53건

- 지배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억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자본 20%로 일원화)
- 더불어민주당 38건, 바른미래당 13건, 자유한국당·정의당 각각 1건 제출
- 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강화 법안 가장 많아



을 두루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 의원의 법안을 바탕으로 당정 및 여야 협의를 진행하는 이유다.

상법과 함께 경제민주화의 큰 축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은 지배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제출된 법안은 53건이다. 발의자의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38건, 바른미래당 13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건씩이다. 이 중 입법에 반영된 것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담아 발의한 2건뿐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

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윤경·박광온·박찬대·박용진·이원욱 의원 등이 일제히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기준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마련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경제민주

화의 한 축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과 이철형 민주당 의원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건이 있다.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발의된 두 법안은 큰 틀에서 내용이 다르지 않지만,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불리는 이 의원의 안이 박 의원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그간 '기업 옥죄기'라는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연초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다시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들 법안의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법안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도 최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현 의원은 "경제계가 수용할 수 있으면서 자유한국당과도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황창규 회장, 20억 자문료로 전직 정·관·군 로비사단 운용" 이철희 민주당 의원 주장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고위 공무원 출신, 전직 고위 장성과 경찰 인사 등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며 이들을 로비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KT경영고문'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자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달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KT가 경영고문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시기는 2015년 이후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회장의 국감 출석 등 현안이 많을 때다.

이 의원은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입' 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창원성산 보선 TV토론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4일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앞서 공식선거법에 따라 참석한 후보 5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민호(민주당)·여영국(정의당)·이재환(바른미래당)·강기윤(한국당)·손석형(민중당) 후보. 연합뉴스



## 메타그린은 왜, 녹차를 직접 재배할까?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100% 국내산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25만 고객의 선택 450억원 판매 2018년 구매고객 및 누적판매 기록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직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기술로 완성된 순수 녹차 정제



체지방 관리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곧 발표"

윤종원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인터넷전문은행 5월까지 예비인가

윤종원(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9·13대책, 30만 호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진정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 상황에 대해 윤 수석은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 그리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우리나라 소득 분배를 보면 평균 소득은 상당히 높지만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히 커서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

윤 수석은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5월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생활 SOC의 조기 확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체계를 4월에 개편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향후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중심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생태계 강화와 반도체 대학과에서의 인력 양성, 주요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상생협력 등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dm@

# 말로만 혁신성장? ... 민간은 설 자리가 없다

### 혁신성장본부 이달 기재부 산하 정부 혁신성장기획단으로 변경 차관급 민간 본부장 자리 없애고 국장이 맡는 기획단으로 급 낮춰 대기업 총수 등 만난다던 홍 부총리, 한 차례도 면담한 적 없어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민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가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혁신성장본부는 이달 말 정부의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찾아 투자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투자 지원 카라반은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

간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해온 혁신성장 본부를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규 조직화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훈령은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훈령이 제정되면 이달 말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정식 출범한다.

간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1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본부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민간 본부장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물러난 뒤 민간 본부장 자리는 3개월째 공석이다. 본부가 정부 조직으로 개편되면 민간 본부장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기재부 국장이 맡게 되면서 기구의 '급'도 낮아진다. 민간이 자문단 형태로 참여할 순 있지만, 차관급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 간 소통도 눈에 띄게 줄었

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투자 지원 카라반 활동은 지난달 28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방문이 전부다. 지난해 투자지원 카라반은 한 달에 3~4회씩 현장을 방문했고, 일부 일정에는 부총리도 동행했다. 충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단체 및 기업 방문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홍 부총리의 기업인 면담 일정은 미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임

식 때부터 강조해왔듯 의지는 강하다"면서도 "일정 등을 봐서 추진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경제단체 및 대기업을 방문한 것은 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난달 20일 KT 과천사옥 방문이 전부다. 대한상의 방문에선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이 함께했고, KT 방문에선 홍준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과 만났다. 경제단체장 및 재벌 총수와 개별 면담은 취임 후 한 차례도 없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공군 '블랙이글스'의 위용 공군 블랙이글스는 올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이를 홍보하고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70주년 기념 이미지를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에 입혔다고 24일 밝혔다.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공중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군

## 韓기업 해외투자 498억 달러 '사상 최대'

### 제조업 전년 대비 92.5% ↑ ... 해외 공장 설립·생산 러시 현지 자체 제품 조달로 對베트남 등 아세안 수출 둔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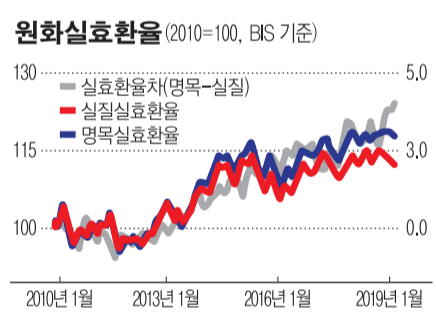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도착액 기준)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6% 늘어난 498억 달러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투자액(446억 달러)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제조업 투자가 16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162억 달러), 부동산업(51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 투자는 전년보다 92.5%나 급증했다. 해외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16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홍콩 포함·83억 달러), 베트남(32억 달러), 싱가포르(16억 달러), 일본(13억 달러), 인도(11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신남방 핵심국으로 꼽히는 베트남 투자 신고건수가 2711건(작년)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인도에 대한 투자 신고건수(408건)는 전년보다 98건 늘었다. 이같이 해외투자가 늘면 수출은 물론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48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1.8%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증가율이 46.3%였다.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으로의 수출 증가율도 2017년 27.8%에서 2018년 5.3%로 줄었고, 인도의 경우 29.8%에서 3.7%로 축소됐다. 올해 2월에는 대베트남(-2.3%), 대아세안(베트남 포함·-3.2%)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설비 투자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아세안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휴대폰, 가전 등의 생산 공장 설립이 하나둘씩 완료돼 해당 품목의 현지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설립 등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 수출은 물론 생산,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저물가 탓 '원화 실질·명목 실효환율' 격차 11년만에 최대

### 한은 "中 소비자물가 1% 오를 때 한국 0.4% 상승에 그쳐"

원화 실효환율 중 물가를 감안한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 간 격차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최근 국내 물가가 주요 교역대상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월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전월 대비 0.34%(0.39포인트) 하락한 112.68(2010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7월(112.51)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명목실효환율도 0.14%(0.16포인트) 내린 117.51을 보였다. 이 역시 지난해 7월(116.6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명목보다 실질 실효환율이 더 떨어



라 상승폭이 더 컸다. 국내 물가 상승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유로(0.3%)와 미국(0.2%)도 올랐다. 일본(0.0%)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환율은 전월(1122.00원) 대비 소폭(0.0%, 0.45원) 오른 1122.45원을 기록했다.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란 세계 61개국의 물가와 교역비율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2010년)보다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고평가(원화 강세)됐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저평가(원화 약세)됐다는 뜻이다. 즉 이 수치가 상승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을, 하락하면 강화됨을 의미한다.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교역량만 가장 평균한 지표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 환노위 소위서 이견 못 좁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 불이 켜졌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비쟁점법안 6건만 처리했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맞서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능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이 빠졌다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달 5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내달 초 개정안이 통과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개편된다 해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신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일정을 종전 3월 31일-8월 5일에서 올해에 한해 5월 31일-10월 5일로 연기했다. 새 결정체계 적용을 위한 조치다. 먼저 4-5월 중에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21명의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지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기간은 고용부 장관 심의 요청 100일 이내인 9월 7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액을 9월 이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심의기간을 보장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EU, 디젤게이트 후 친환경·자율차로 재편"

### 한은 "R&D 확대 등 대비"

유럽연합(EU)의 자동차시장이 친환경·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U 자동차시장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EU 자동차 시장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디젤게이트 후

EU 집행위는 자동차 관련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EU는 203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목표를 2021년(95g/km) 대비 3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도 향후 10~20년 사이에 디젤과 가솔린을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정책 등을 발표했다. 또 파리, 베를린 등 일부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앞서 디젤차 운행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30년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에 달할 것이라 전망한다. 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발전 단계도 2020년에는 완전자율주행(5레벨) 직전인 조건부자율주행(3레벨)이나 고도자율주행(4레벨)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친환경·자율주행차 연관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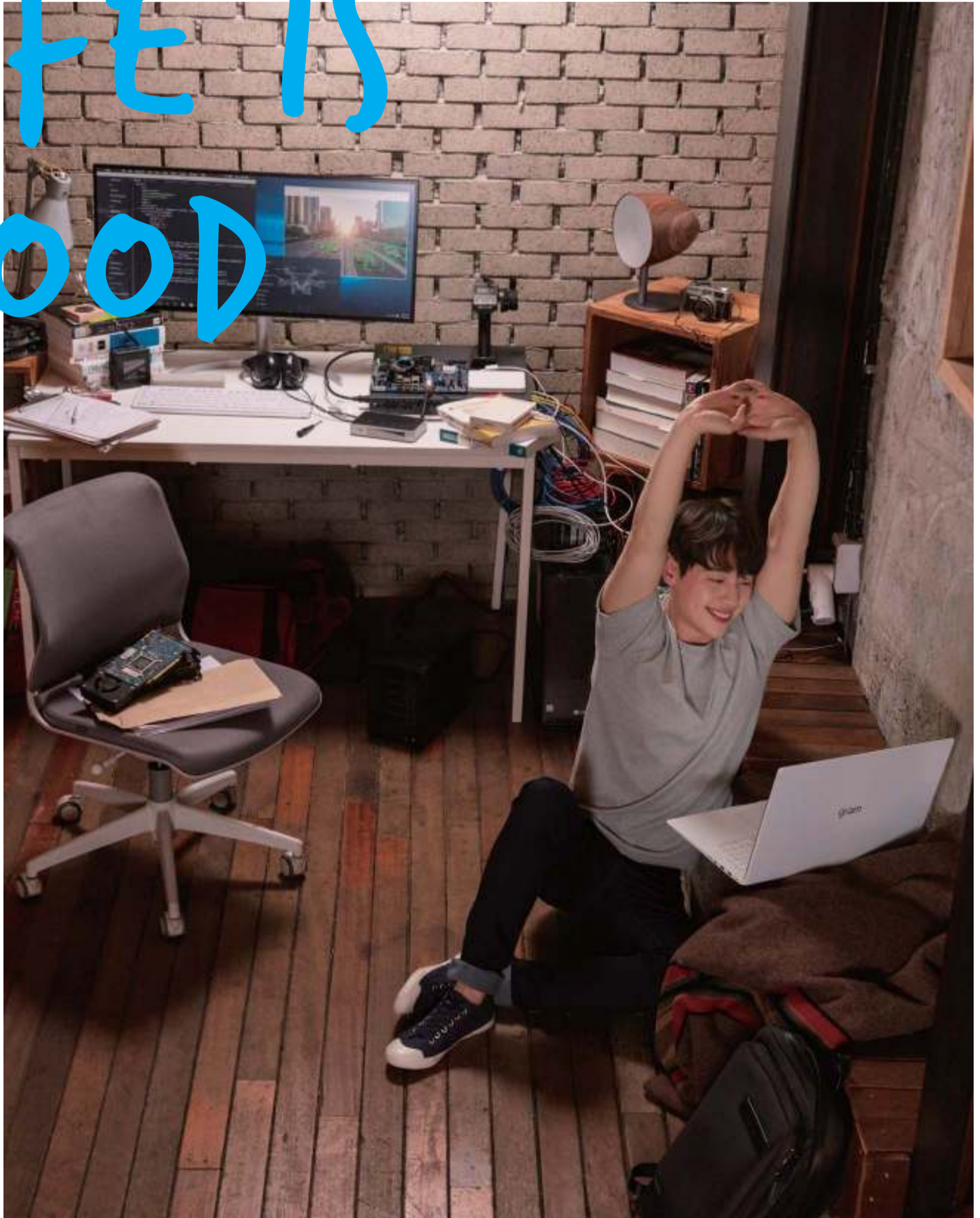
나를 믿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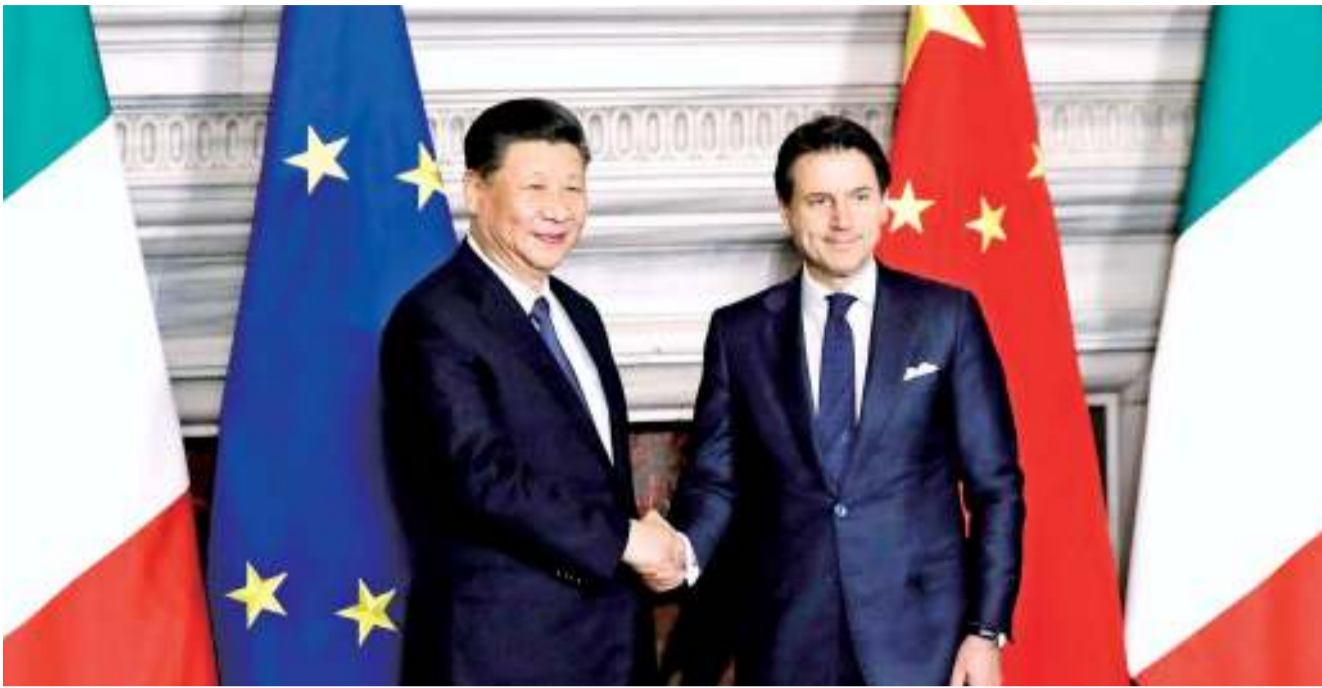
LIFE IS GOOD

- 세상은 바뀌지 않아
- 세상은 바꿀 수 있어

세상을 바꾸는 건  
세상에 없던 생각이니까

당신의 더 행복한 LIFE를 위해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로마 도심 외곽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 저택 '빌라 마다미'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중 최초로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하게 됐다. 콘테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MOU 체결을 계기로 더욱 효율적 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마/AP연합뉴스

# ‘일대일로’에 분열되는 서방 세계

이탈리아, 주변국 우려에도 G7 중 처음으로 中 프로젝트 참여

이탈리아가 서방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하면서 서방 세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일대일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개최했다.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이 아니지만,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초로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를 두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거래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의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중국으로선 EU의 핵심 일원인 이탈리아를 우방국으로 끌어들이면 EU 내에서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위상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외자유치·反 EU 등 총선 노림수 美 “伊, 국제적 이미지 훼손” 비난

수 있다.

이탈리아도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다져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양국이 이번에 체결한 MOU에는 동유럽을 잇는 슬로베니아와 접경한 트리에스테항, 북서부 제노바항의 개발에 양국이 협력한다는 등 총 29개 조항이 담겨 있다. 이것 외에도 이탈리아 기업들은 중국과 농산물, 금융, 토목, 철강,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총 25억 유로(약 3조2063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탈리아 집권당인 오성운동은 중국과 협력해 외자 유치, 고용 증가 등 성과를 내세워 다음 총선에 미리 대비하려는 속셈이라고 닷케이는 평가했다.

반(反)EU를 제창하는 오성운동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EU 분열에 가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줄곧 중국을 경계해온 EU는 21~22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문제를 언급했다. EU 정상들은 회의에서 “시장을 충분히 열지 않는 중국은 EU의 경쟁 상대이며 미지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감을 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내 경제 규모 3위이자 EU 창립 멤버인 이

탈리아가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은 EU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심어줄 수 있다. 오는 5월 23~26일 치러지는 제9대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이탈리아의 반EU 입장을 피력할 수 있게 됐다.

서방 국가의 분열 조짐이 보이자 각국 대표들은 우려와 경고를 표명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개럿 마키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는 중국의 ‘헛된(vanity)’ 인프라 프로젝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일대일로 참여가 경제적으로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며 장기적으로 이탈리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22일 이탈리아 로마의 한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악랄한 경제 모델을 살펴보고 결정을 재고할 것을 이탈리아에 충고한다”며 “중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 탐욕스러운 입맛을 가지고 있다”고 이탈리아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 우버 이어 핀터레스트도 IPO 올봄 뉴욕증시 대어 쏟아진다

약 15억 달러 자금조달 전망

올봄 미국 뉴욕 증시에 대어들이 쏟아진다.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테크놀로지 이어 이미지 공유·검색 플랫폼 핀터레스트도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핀터레스트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를 신청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PINS’로 상장된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로이터통신은 1월 핀터레스트가 올 상반기 IPO를 통해 약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핀터레스트는 2018년 매출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7억55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순손실은 6297만 달러였으나 이는 전년의 1억3000만 달러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인 핀터레스트의 NYSE행은 최근 추세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년간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시장보다 NYSE 상장을 선택하는 IT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나스닥시장은 페이스북 상장 당시 대형 시스템 오류가 계



속되면서 기업들이 상장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NYSE와 나스닥 두 시장은 상장 유치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는 나스닥을 택했다. 리프트의 공모가는 이달 28일 결정되며, 기업 가치는 230억 달러이거나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는 4월 NYSE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에 따라 기업가치는 최대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와 리프트는 작년 12월 동시에 SEC에 IPO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장 시기는 리프트가 조금 앞선다. 리프트는 지난주 IPO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했다.

21일 상장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31% 높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윌리엄 바 법무장관,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 AFP연합뉴스

# ‘몰러 특검보고서’ 공개 초읽기 ‘러 스캔들’, 트럼프 숨통 조일까

2년 수사 결과 법무부 제출

미국 법무부는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가 2년 가까이 수사해 제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몰러 특검은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스캔들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22일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하면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34명을 기소했다.

보고서를 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의회 보고를 23일께 실시할 의향을 표시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몰러 특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여부다. 내부 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당시 대선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내부 문서를 유출시킨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타격을 줬다. 몰러는

유출된 정보는 러시아 군이 사이버 공격으로 입수했다며 러시아 군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몰러는 트럼프 진영이 유출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봤다. 트럼프의 고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의혹 수사를 트럼프가 방해했는지 여부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해당 수사를 맡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해 5월 그를 해임했다. 코미는 수사 중단에 대해 트럼프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것이 수사 방해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몰러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다. 트럼프는 2018년 11월 러시아 의혹에 대해 몰러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답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위키리크스로부터 민주당 캠프의 내부 문서가 유출된 걸 사전에 몰랐다고 답했다. 사전 보고가 있었다고 답변 코언의 증언과 모순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23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태연하게 골프를 즐겼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잘나가던 에티오피아항공, 보잉기와 함께 위상 추락

1945년 설립 후 승승장구... 이번 대참사로 안전성 논란 휩싸여

지난 1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떠나 케냐로 향하던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8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승승장구하던 에티오피아항공의 위상도 함께 추락했다.

에티오피아항공은 1945년 에티오피아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 1세가 설립한 국영 항공사다. 지난해에만 약 11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현재 총 111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아프리카 최대 항공사로 등극했다.

이웃나라의 국영 항공사 지분을 꾸준히 인수하며 몸집을 불린 에티오피아항공은 이후 독일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아시아나 등과 공동 운항(코드셰어)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에는 최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

라이언스에 가입하며 일류 항공사의 길을 걸어들었다. 현재 조종사, 승무원, 항공 기술직 등 인재를 육성하는 아프리카 최대 항공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항공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아디스아바바에 메가 허브 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메가 허브 공항을 런던에 있는 히드로공항 규모로 지어 연간 80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탑승자 157명이 전원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지자 명성과 안전성이 크게 훼손됐다. 미국 CNN비즈니스는 “에티오피아항공은 70년간 두 번의 추락사고만을 겪으며 안전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사고로 승객들은 에티오피아항공의 안전성에 큰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디스아바바 메가 허브 공항 건설 계



23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의 볼레크제공항에 착륙한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8 여객기의 날개 부분에 에티오피아항공 로고가 그려져 있다. 아디스아바바/AP뉴스

획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비즈니스는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추락사고가 지난해 10월 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 추락사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에티오피아항공의 이미지 훼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 '작통 레고'에 당했다고? 토종 캐릭터 만들거든! **싼티 벚은 중국**

중국의 장난감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독특하고 질 좋은 장난감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세계 유수의 장난감 업체들이 주문한 상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자체 브랜드로 승부를 걸겠다고 나서고 있다. 몇 년 안에 '짜구려' 장난감 업체 이미지를 벗어던지겠다는 포부다.

현재 세계 장난감의 75%가 중국 업체 손에서 탄생한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연간 판매된 장난감 중 85%를 중국이 생산한다. 엄청난 규모이지만 대부분 해외 장난감 브랜드 제품을 싸게 찍어낸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을 연구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한 노력 끝에 해외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단계에 올라섰다. 향후 자체 브랜드만으로 세계 시장을 호령한다는 전략이다.

항저우 Z T 모델 컴퍼니(HZTMC)의 판매 담당 매니저인 아룬 톤은 "아직 많은 중국 장난감 업체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 OEM은 우리의 주력 사업이 아니다"라고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HZTMC는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및 영국의 파트너와 10개 이상의 제품을 공동 브랜드하고 있다. 톤은 "우리는 향후 몇 년 안에 공동 브랜드도 점차 없앨 예정이다. 해외 업체들이 OEM을 기반으로 우리와 협력하길 희망하는데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HZTMC는 현재 전체 인력 200명 중 30명 이상이 연구원과 엔지니어링 인력이다. 또 영국에는 자회사인 플레이스팀에듀케

이션을 세워 디자인 팀을 꾸려나가고 있다.

공동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일찌감치 해외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중국의 디즈니'로 불리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알파그룹은 2년 전 로스앤젤레스(LA)에 디자인과 마케팅 허브를 구축했다. 알파그룹의 글렌 유 디자인 디렉터는 "미국에 진출한 지 2~3년 만에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중국의 생산자원과 해외 디자인 자원을 결합해 상당한 이점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능력 없이 공장만 준비했던 중국이 해외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자체 브랜드 개발의 토대를 다지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해외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2년 전 HZTMC에 합류한 프랑스 출신 연구원 자파르 무함마드는 "예전에 중국 완구 제품은 싸다는 인식이 전부였지만 이제 기능과 성능으로도 밀리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뉴욕의 유아 콘텐츠 생산업체인 리틀에어플레이프프로덕션의 조쉬 셀리그 대표도 "중국과 협력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9 북미 국제 장난감 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저장성 소재 닝보광이토이스의 마후이니 사장은 "우리는 과거에 유럽 시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나무 장난감으로 미국 공략에 나섰다"며 "자사 디자인팀이 글로벌 장난감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 업체들에 디자인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 中日 'NEW 토이 스토리'

'저가 장난감' 생산공장서 해외 유명 기업과 손잡고 디자인-마케팅 허브 구축 유럽·美도 아웃소싱 나서



# '건프라 덕질' 싫다면... 게임기 조립은 어때? **체험 입힌 일본**

반다이, 프라모델 시장 정체 새 브랜드 '펀포터'로 대혁신 "무엇이든 조립 가능" 콘셉트 마니아·일반인 두 토끼 공략



세계적 프라모델·피규어 업체인 일본 반다이스피리츠(Bandai Spirits)가 프라모델의 대혁신을 꾀하고 있다.

최근 일본 프라모델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반다이는 마니아와 일반인 모두를 겨냥하는 공격적이며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소개했다.

반다이는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 영화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등장 로봇을 소재로 한 '건프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장난감 업체다.

반다이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1월 15일(현지시간) 발족한 새 브랜드 '펀포터(FUNPORTER)'다. 프라모델의 본질을 '조립에 따른 다양한 제조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로봇 등 기존 제품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대상물에 대해 조립의 추가 체험을 제공해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다이는 지난달 2월 15~17일 도쿄 돔시티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펀포터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켰다.

일본 세가세턴 게임기와 초콜릿, 다마고치 등

프라모델이라 고상상하기 어려운 소재를 제품화한 것들이 전시됐다. 그동안 프라모델은 조립이 다 끝난 작품이 주목받기 십상이었지만 이를 조립한다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이 쉽게 프라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반다이 하비사업부의 후지

와라다카시 제너럴매니저는 "우리는 오래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지닌 프라모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즐거움의 본질을 전하고 싶다"며 "펀포터에서는 사물 구조의 이해와 조립 경험에 착안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전시회와 취미 공간을 갖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니아층을 만족시킬만한 제품도 있다. 로봇 프라모델에서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부 구조를 사용자들이 조립할 수 있게 했다. 또 로봇 손을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나타내는 등 섬세하게 만들고 피부 혈색을 재현하는 등 과거에는 매우 숙련된 장인들만 구현할 수 있었던 기술을 구현했다.

손재주가 서투르다고 생각해 프라모델에 거리를 뒀던 사람들을 겨냥한 전략도 있다. 반다이는 올해 6월 입문용 프라모델 라인업인 '30미니츠미션스(30MINUTES MISSIONS)'를 출시할 예정이다. 건담과 같은 인간형 로봇 장난감이지만 반다이 자체 오리지널 디자인을 채택했다.

반다이는 프라모델을 어렵게 느끼는 주원인이 부품 조립 자체보다는 해당 부품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부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건프라는 만화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출 성형 용이성을 우선시해 설계, 부품 배치가 같도록 복잡해지고 있었다. 반면 새 라인업은 부품 배치를 우선순위에 놓고 디자인을 결정,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로봇을 조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진드 놀래!  
진드 놀아!  
얼마나 놀았을까!

#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www.childfund.or.kr

회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 ‘ICT 기업’ 의존한 제3인터넷銀... 사실상 흥행 참패

‘토스뱅크’가 신한금융의 이탈로 좌초 위기에 몰리자, 3번째 인터넷은행 진출 경쟁도 차갑게 식었다. 자본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야 하는 제약이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주도하는 ‘토스뱅크’가 신한금융의 이탈로 흔들리고 있다. 현대해상과 직방, 카페24까지 줄줄이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토스는 새롭게 주주를 구성해 예비인가 절차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신한금융의 공백은 향후 인가 심사에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인터넷은행의 흥행은 성공보단 ‘실패’에 가깝다. 지난달 11일 신한금융이 토스와 컨소시엄을 꾸리기 전까지 도전장을 내민 유력한 후보가 없었다. 이후 하나금융이 SK텔레콤, 키움증권과 손을 잡은 것이 전부다.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던 NH농협은행은 적당한 ICT 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인터넷은행 도전을 철회했다.

이는 ICT 기업에 대한 의존도와 무관치

ICT 기업, 자본금 확보 의문 지속 가능성도 담보 못 받아

신한금융, 토스뱅크 불참 선언에 현대해상·직방·카페24 줄이탈

ICT 기업 의존도 적은 일본에선 유통기업 세븐일레븐이 대주주로

않다. 인터넷은행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정된 은행법은 ICT 기업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에 ‘은산분리’ 제한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력을 갖춘 신한금융이 ‘토스’와 손을 잡은 이유다.

문제는 ICT 기업이 자금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주주 자격이 ICT 기업에 부여되기 때문에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총알’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한금융이 토스와 결별한 배

해외	대주주	업종
세븐(일본)	세븐일레븐	유통업
몬조(영국)	패션 캐피탈	사모펀드

국내	대주주	업종
카카오뱅크	카카오(예정)	ICT
케이뱅크	KT(예정)	ICT

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한금융은 토스가 이러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던 네이버가 일찍이 불참 선언을 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기가 급격하게 식은 것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는 인터넷은행 진출에 있어 ICT 기업 의존도가 덜 하다. 특히 일본의 인터넷은행 세븐(Seven)은 대주주가 유통기업 세븐일레븐이다. 영국의 인터넷은행 몬조(Monzo)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패션 캐피탈(Passion Capital)이다. 이 밖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유통사, 자

동차 등 ICT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다.

ICT 기업이 주도한 인터넷은행은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IT 기업이 주도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금까지 생존하지 못했다. NARS 현안보고서가 작성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성공 요인에는 기술과 혁신성보다는 차별화된 고객 기반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이 핀테크의 상징 격으로 거론되지만 정확하게는 산업융합의 한 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기업(IT)을 우선시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존폐 기로에 선 기축법 금융위-법원 ‘살바싸움’

20여년간 한시법 형태 운영 상시화·폐지 두고 갈등 우려  
업계 “금융위, 운영방향 용역 법원과 의견교환 어려울 것”

20년간 연명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축법)’의 존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밧곳 싸움을 지지부진 이어온 양측이 이번에는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기축법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5년 기한으로 연장된 기축법을 상시화할지, 폐지할지 논의가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발주 이후 올해 중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법원, 법무부 등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다”며 “용역과 같이, 또는 용역 이후 대화를 진행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에서 제안이 오면 논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위와 법원의 기축법 관련 논의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축법을 한시적으로 되살리면서 걸어온 ‘부대의견’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20대 국회 임기 안에 법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기축법의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를 정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축법을 상시화할 건지, 아예 폐지할 것인지를 내년 5월 29일 전까지 논의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발주한 용역은 아무래도 금융위의 입맛에 맞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면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와 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도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며 “20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져온 기축법이다. 이번이라고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기축법은 2001년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외환위기의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축법은 이후 폐지와 연장, 제정을 이어가며 20여년간 한시법 상태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기축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은 법원의 회생절차보다 앞선다. 기축법이 존재하는 한 구조조정에서 법원의 논리는 금융의 논리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축법은 금융위와 법원의 밧곳 싸움”이라며 “기축법의 향방에 따라 금융위와 법원의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곽진산 기자 jinsan@

#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 국내 손해보험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 대한민국 여산금융의 리딩 컴퍼니 - DB캐피탈

## 핀테크·인공지능 빅데이터... 인슈어테크 선두주자 'DB손보'

DB손해보험이 핀테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인슈어테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4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회사는 2017년 전문조직 구성 후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15명의 전문가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고객 경험 혁신, 빅데이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4대 중점 영역을 통해 급변하는 보험시



20일 김정남(오른쪽) DB손해보험 사장과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DB손해보험

장에 대응하고 있다. 또 인슈어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신상품과 서비스 발굴, 보험업무 절차 개선, 고객까지 혁신 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lifepius.co.kr/lifemeetslife](http://lifepius.co.kr/lifemeetslife)  
라이프플러스 웰니스 키트를 만나보세요.



L I F E  
P L U S



때로는 도전을,  
때로는 안정을 거듭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 가치 있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삶을 마주하는 금융을 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한화생명**

LIFEPL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 유례없는 경영 불확실성...재계 '코어 강화' 한목소리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0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의장 인사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총서 핵심사업 집중 의지 삼성전자 “전 분야 근원적 혁신” 하이닉스 “본원적 경쟁력 강화” 어려울수록 잘하는 분야 집중

경영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코어(핵심) 경쟁력 확대에 나섰다.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은 ‘근원적’·‘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기 극복 해법으로 제시했다. 힘들수록 기업이 잘하는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 CEO들은 주주총회에서 ‘근원적’ 혹은 ‘본원적’ 경쟁력 강화란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올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주총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메모리 수요 둔화에 맞서 반도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반도체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기가 지나고 올해는 어려운 사업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공정 미세화와 수율 향상을 통해 원가절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반도체로 큰 돈을 번 삼성전자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0일 “올해도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회사 전 분야에 걸친 근원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주총 다음 날 바로 세계 최초 ‘3세대 10나노급(1z) 8Gb(기가비트) DDR4 D램’ 개발 소식을 알렸다. 2세대 10나노급(1y) D램을 양산한 지 16개월 만에 3세대 10나노급(1z) D램을 개발하며 역대 최고 미세공정 한계를 넘었다.

정유업계의 경우, 주유소 공간을 활용하고 유통·물류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주유소 인프라라는 핵심 경쟁력을 활용하는 것. 에스오일은 최근 서울 강서구 공한대로의 하이웨이주유소에 국내 최초의 미래형 무인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열었다. 이 지점은 핵심 IT 기술을 모두 적용해 스마트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주유소를 택배 화물 집하시설로 바꾸고 있다. 양사는 물류 스타트업 기업 ‘줍마’와 손잡고 C2C 택배 택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주유소를 차량 배치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카셰어링 그린카에 총 350억 원을 투자했다.

재계 관계자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기업들이 코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잘 활용해 새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송영록 기자 syr@

## 삼성, 블록체인 ‘보안 사업’ 속도

### 삼성넥스트 투자한 ‘필라멘트’ 세계 최대 블록체인 협회 가입 겔S10, 블록체인 지갑 탑재도

삼성넥스트가 투자한 미국 기업이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업계에선 갤럭시S10에 블록체인 지갑을 처음 탑재한 삼성전지도 관련 사업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필라멘트(Filament)는 19일(현지시간) 이더리움 기업연합(EAA)에 합류했다. 2017년 출범한 EEA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인 이더리움을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등 글로벌 기업 500여 개가 참여하고 있다.

필라멘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산업용 IoT 분야에서 분산형 보안 솔루션을 제

공하는 업체다.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와 협력하고 있다. 삼성넥스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필라멘트를 통한 전 세계 비즈니스의 블록체인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와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사업 확대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필라멘트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의 데이터 유출 위험을 낮추는 HYPR과 암호화폐 지갑 개발 업체 ‘케이젠 네트웍스’에 투자했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이달 초 출시한 갤럭시S10에 블록체인 월렛을 탑재하며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월렛은 이더리움, ERC20 토큰 등을 관리하는 암호화폐 계좌 관리 서비스와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갤럭시S10 사용자는 별도 하드웨어가 없어도 블록체인 기반 게임 모바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자율주행 톱3 모두 美...현대차는 15위 머물러

구글, GM, 포드 등 미국 기업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반면, 현대차는 10위권 밖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국 유력 기술조사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율주행차 출시가 예상되는 20개 회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업계 ‘리더 그룹’은 3곳으로 모두 미국 기업이었다. 1위는 구글 웨이모가 차지했고 2, 3위에는 각각 GM 크루즈, 포드 오토노머스 비히클스(FAV)였다.

웨이모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 ‘웨이모 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포드는 최근 자율주행차 기술

시설 구축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GM은 올해 완전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미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연구위원은 “상위 3개 기업은 이미 양산 설비를 준비하고 있어 경쟁에서 다소 앞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리더에 도전하는 ‘경쟁자 그룹’으로 평가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에 이어 15위에 머물렀다. 2017년 10위에 오른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국민연금 선택은

(한진그룹 회장)

### 27일 대한항공 주총서 결정 지분 12% 보유한 2대 주주 업계 “IATA 총회 고려해야”

다음 주 한진그룹 주주총회에서 뜨거운 표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등기이사 연임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총 전에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24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 상정된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



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일, 현정은 회장을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장기적 주주 가치 고려’라는 이유로 기권을 결정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적용할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황령,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현 회장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진행되는 한진칼 주주총회 역시 6.7%를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중요한 카드다.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해 적극 반대 공세를 펼칠 예정이었던 한진칼 2대 주주(12.8%)인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한진칼 주식 보유 기간이 상법에 규정된 6개월이 안 된다”는 이유로 “KCGI는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태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이 관건이다. 현재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선 태수 연임을 ‘반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재구조조사원(KCGS)은 ‘찬성’을 권고한 상태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임기는 1년이 더 남았다.

한편, 한진칼은 주총에서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의 이사 선임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50억 원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임기는 1년이 더 남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LG전자·다이슨 ‘청소기 법정 공방’ 소모전 아니네

### 국내외 ‘흡입력 광고 문구’ 소송 LG, 호주 점유율 11위로 경쟁 다이슨, 프리미엄 이미지 다져

청소기 광고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LG전자와 영국 생활가전 기업 다이슨이 4년째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이 커지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다이슨은 LG전자 광고에서 청소기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 등을 문제 삼으며 광고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이 공방은 진행 중이다.

양측의 공방은 2015년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내며 시작했다. 다이슨이 광고에서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호도했다는 이유였다. LG전자 청소기 흡입력은 최대 200W로 다이슨보다 두 배 강했다. 이에

### LG전자-다이슨 소송 일지

날짜	내용	결과
2015년 10월	LG전자,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 허위광고 금지소송 제기	다이슨 인정, LG 소송 취하
2016년 2월	LG전자, 서울중앙지법에 다이슨 업무 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다이슨 사과, LG 고소 취하
2017년 12월	다이슨, 서울중앙지법에 LG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8년 7월	다이슨, 서울중앙지법에 LG 광고금지 소송 제기	진행 중

다이슨은 LG전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호주 전 매장에 표시된 관련 문구를 지웠다. LG와 다이슨의 2라운드는 2016년 2월 한국에서 벌어졌으며, 2017년 말에는 다이슨이 LG전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LG전자가 지난해 다이슨 텃밭인 호주에서 ‘코드제로 A9’으로 전면승부에서 양측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점유율 80%에 달했던 다이슨은 40.5%로 주저앉은 반면, LG전

자는 점유율 순위 11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의 공방에도 양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이슨의 반격과 견제가 오히려 LG 청소기의 인지도를 올려줬으며 다이슨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 선도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양사의 법정 공방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한경연 “올 성장률 2.4% 지난해보다 0.3%p 하락”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1/4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0.3%p 하락한 2.4%”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던 수출 성장세 둔화와 투자 부진의 지속이 경제성장 흐름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전년도 3.9%를 기록했던 수출 증가율이 2.9%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수출 상대국들의 성장률 감소,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반도체 단가의 하락 등 전반적인 교역조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투자 위축도 성장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설비 투자는 기존 증설 설비에 대한 조정 등으로 올해에도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無人·錢·線>

# 4차 산업혁명 '무인전선 시대'...사람·쩐·선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주창했고 우리나라가 열광하고 있는 개념이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개념이 모호하다거나, 일종의 '마케팅' 차원의 용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4차산업 혁명이 '무인전선(無人·錢·線)'의 형태로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사람의 노동력과 종이화폐, 그리고 기기 간 또는 기기와 사람의 연결선이 사라지면서 일상 경제생활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이후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일터에 나가기 시작하며 소비품을 담기 위한 핸드백이 대중화한 것처럼 말이다.

이미 음식점에서는 주문을 받는 종업원 역할을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기술 발전 속도라면 4차 산업혁명이 경제활동 전반에 파괴적 변혁을 예상보다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 무인 로봇 시장 내년 203조...일자리 43% 대체 위협

◇무인 시대, 기술 모르는 인재의 소멸 = 로봇과 AI는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로봇 바리스타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이며, 가사도우미 로봇과 길 안내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준다. LG전자가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수트봇'은 사람의 힘을 수십 배 강하게 해 준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16년 915억 달러(약 103조 원)에서 2020년 1800억 달러(약 203조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눈을 들이는 이유다.

스마트팩토리로 확대되는 추세다. 포스코나 삼성전자가 대거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4000개 스마트팩토리를 추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인재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 지능형 설비 개발 및 제어를 중심으로 일

지리의 질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AI에 의한 일자리 위협 진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3%가 로봇, AI로 대체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년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로 AI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나선 구글. 그 배경에는 구글이 인수한 영국 AI 스타트업 딥마인드가 있었다. 딥마인드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는 13세에 세계 유소년 체스 대회 2위를 하고, 15세 때 고등학교를 마친 후 케임브리지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서 인지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다.

천재 인력이 아니라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로봇과 AI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건강한 몸으로 멀쩡히 눈을 뜨고도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당달봉사'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무선 현찰 사라진 결제 생태계...모바일페이 전쟁

◇현찰 사라진 시대, '페이' 없이는 돈도 못쓴다 = 역사적으로 물물교환 방식에서 금·은→지폐→신용카드로 이어지던 지급결제 방식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등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결제가 대세다. 현재 간편결제 시장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다. 심지어 현금전국으로 통하던 일본에서조차 유커들의 스마트폰 결제가 쇄도하며 디지털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페이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진영이 결제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의 삼성페이(1300만 명), 메신저 1위 카카오의 카카오페이(2600만 명), 포털 1위 네이버의 N페이(2600만 명), 대형마트 1위 이마트·신세계의 SSG페이(700만 명), e커머스 1위 이베이 코리아의 스마트페이(1300만 명)

등이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인다. 간편결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까닭은 돈이 되는 생태계를 구현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플랫폼에 소비자들을 가두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그들의 취향을 분석하고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제공해 준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상당수 젊은 갤럭시 사용자들은, 삼성페이 때문에 다른 폰으로 갈아탈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에 블록체인 프라이빗 키를 보관할 수 있는 '키스토어'를 탑재했다. 별도 하드웨어 없이도 블록체인의 기반 게임, 모바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재난·재해로 통신망 마비가 디지털 결제불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 무선 청소기·이어폰·충전기 등 이미 가전 대세로

◇와이어리스(Wireless)의 막대한 부가가치 = '와이어리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기술이다. 선 하나 없었을 뿐인데, 일상의 편리함은 상상 이상이다. 무선 청소기 판매가 유선 청소기를 앞질렀고, 애플 에어팟과 삼성 갤럭시 버즈 등 코드리스 이어폰은 젊은 층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S10은 뒷면에 무선충전 패드를 달아 다른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는 전기선을 비롯한 각종 케이블이 필요 없는 차세대 TV 개발에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 문제 역시 '와이어리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도로를 달리면서 도로 바닥에 깔린 무선충전 시스템을 이용

하는 것이다. 와이어리스는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와이어리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특히 선에 의존하지 않는 노동력은 경제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전자자동차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두 시간을 다른 생활활동에 쓸 수 있다. 스마트폰의 충전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 집중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신소재 및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업계는 흑연의 뒤를 이을 소재로 실리콘(Si)에 주목한다. 실리콘은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정도 크다. 송영록 기자 syr@하유미 기자 jscs508@김준형 기자 junior@

### 4차 산업혁명시대 사라진 3가지



- 인간과 공감 가능한 소셜 로봇 등장
-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확대
- 무인 상점
- 송금은 물론 입출금까지 가능한 페이
- 휴대폰 번호로 5초 만에 상대방에게 입금
- 무선 휴대용 충전기
- 코드리스 이어폰
- 무선 자동차 충전 시스템
- 대체가 된 무선청소기
- 전선 없는 TV 개발 중

### 70th 교보증권 창립 70주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로보서비스 무료이벤트**

로보서비스(투자·의달인, 마보, 스톡봇) 이용 무료  
 로보서비스신용카드만 가능  
 2019.01.01~2019.12.31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신용공여이자율 혜택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연 4.9%, 담보대출이자율 연 5.5%  
 2019.01.01~2019.12.31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먼 고객의 비우려 혜택개시 전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이벤트**

해외담보대출 연 4.1% 적용  
 2019.01.01~2019.12.31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 대출건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2019.01.01~2019.12.31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이벤트 기간에 비우려 또는 은행연계 채널을 이용하여  
 해외주식 거래를 개시한 고객(신규증권거래에 한함)

---

####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 인증
3. 주소 등 정보 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 인증
6. 신청완료

**투자자 유의사항**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보험에 비해 위험 부담이 높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금·저축·보험 미달 시 기간 내 추가 납부를 계약하지 않으면 납부 불이행 시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외 주식의 경우 비대면 채널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5대, 시외 MTS 4대,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 기본 1개 적용, 증권거래본국·신규계좌만 해외 주식 기본 매매수수료는 전 시장 0.3% 내외) (이벤트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HKD, 중국 1000CNY로 개시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해당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적당점점 및 소비자지원센터(1544-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서비스 고객에게 맞는 투자 정보는 수익담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B2B 유통 규제, 공유주방 활성화 가로막아”

규제개혁이 혁신생장의 답이다

⑮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배달·온라인 유통 시장 커지며 공유주방 업체 늘었지만 F&B 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 식품 시장 다양성 떨어져 음식 조리 공간이 본인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 개선해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 업체가 없었다. 작년부터 여타 공유주방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배달 시장이 커지고, 온라인 유통 시장 커져서다. 시장 상황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정부 부처나 공무원들의 현실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바야흐로 공유주방 전성시대다. 1년 사이 속속 관련 업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만든 공유주방 서비스도 이르면 내달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공유주방은 ‘규제’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내 최초로 공유주방 서비스를 선보인 김기웅(39)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를 만나 규제 애로와 공유주방 산업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2014년 3월까지 증권사에서 파생 트레이더로 일했던 김 대표는 증권사를 나올 당시만 해도 공유주방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가정간편식(HMR)을 생각하고 증권사를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달 음식점을 시작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외식업의 구조

적인 문제를 몸소 겪었다”고 회상했다. 문제를 풀 방안을 고민하다가 김 대표가 고안한 것이 지금의 공유주방이다. 그는 “자원을 공유하고 고정비를 절감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노력이 발전해 지금의 서비스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앱 시장의 확대와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푸드마켓 업체들의 성장도 기회 요인이었다. 전통적인 식음료(F&B) 매장이 줄어들고 있었다. 반대로 효율적인 생산과 배송이 되는 공간의 수요는 늘어났다.

2015년 10월 법인 설립 뒤 김 대표는 2016년 6월 국내 최초 공유 주방 ‘위콧’ 서비스를 시장에 내놨다. 대치동 지점으로 첫선을 보여 현재는 공덕지점, 사직지점 총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콧을 사용한 누적 팀은 460개 팀 이상이며 현재 한 달 기준으로 약 80개 팀이 위콧을 쓰고 있다. 올해 목표는 지점을 20개까지 늘리는 것이다. 누적 투자액은 100억 원을 넘겼고, 조만간 대규모 투자유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위콧 공유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터뷰에 앞서 이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규제개혁 끝장캠프’에서 김 대표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당시 김 대표는 두 가지 규제 애로를 토로했다.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제를 풀고, B2B(기업 간 거래)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점이었다. 끝장캠프 토론 결과 김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B2B 유통 문제는 아직 난제로 남아 있다.

B2B 유통이 안 된다는 말은 공유주방에서 식음료 제조 사업자가 만든 음식을 주변 편의점을 비롯해 마켓컬리 같은 업체를 통해서도 팔 수 없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위콧 공유주방에서 만든 도시락 100개를 사업장 주변 주민에게 팔면 합법인데 주변 편의점에 100개를 납품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체들이 일일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장에 아웃소싱해도 최소 생산 단위를 3000개로 부른다”며 “안 팔리면 모두 재고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 때문에 F&B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 시장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따라온다.

‘위생’을 이유로 공유주방이 규제받는 것에 관해 김 대표는 식약처나 일반 대중이 오해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사업체나 팀들이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

주방이 더 위생 관리에 철저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위콧은 주방을 설계할 때부터 위생 관리를 고려했고, 위생사가 상주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개별 사업들이 운영하는 폐쇄된 공간이 오히려 상시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영업 허가를 낼 때, 1년에 한 번 위생 점검 나올 때만 신경을 쓰다가 우수 위생법 위반으로 걸리는 데가 많은 이유”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바라는 공유경제 지원책이 있는지는 물음에 김 대표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지원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유주방에 F&B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업자 계약 등록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 하는 등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본인 소유여야 한다는 생각은 불합리하다”며 “건물주만 잘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F&B 사업은 창업률도 높지만, 폐업률도 높다”며 “공간과 설비에 큰돈을 투자하기 마련인데 실패할 때 떠나는 비용이 인생에 타격을 주는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위콧이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사업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공간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사업화를 위한 판로, 배달,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직원들 모두 했지만, 이제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F&B 스타트업, 사업자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이진민 기자 aaaa3469@

## KT, 쓰리디팩토리 손잡고 ‘VR 콘텐츠’ 서비스

‘캠프VR’ 일산점 등 전국 10곳 적용  
VR 게임 인기 콘텐츠 80여종 제공

KT가 VR 체험존 사업자 대상으로 VR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을 시작한다.

KT는 VR 체험존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쓰리디팩토리와 VR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T는 25일부터 쓰리디팩토리가 보유한 VR 체험존에 KT의 VR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쓰리디팩토리는 VR 체험존 사업을 하는 국내 대표 VR 기업이다. 현재 전국에 60여 개의 ‘캠프VR’과 ‘VR플러스’ 직가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캠프VR’ 일산점을 시작으로 경주점과 대구점 등 대표 매장 10곳에 KT 플랫폼과 콘텐츠를 우



서울 흥대 인근의 한 카페에서 모델들이 기가리 이브TV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선 적용할 계획이다.

KT는 지난해 3월부터 도심형 VR 테마파크 ‘브라이트(VRIGHT)’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이트’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확보한 VR 플랫폼과 콘텐츠를 기업용 VR 패키지로 개발해 이번 ‘캠프VR’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VR 체험존은 고객들이 VR 기기가 설치된 방 안에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한 후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T가 개발한 기업용 VR 패키지는 이러한 운영 방식에 최적화된 VR 플랫폼과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KT와 제휴한 국내 유명 VR 게임 제작사들의 인기 콘텐츠 80여 종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김훈배 KT 뉴미디어사업단장은 “KT는 콘텐츠 개발사, VR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 국내 VR 강소기업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VR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을 계기로 국내 VR 시장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SK텔레콤 모델이 본격적 5G 시대를 앞두고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AR를 활용한 깜짝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 이통3사, 5G 요금제 공개 임박

‘겍S10 5G’ 내달 5일 출시 맞춰 SKT, 5만원대 추가… 4종 윤곽 소비자 “3만~4만원대 나와야”

다음 달 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관련 요금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다음 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5G 요금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통 3사가 5G 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5G 폰 ‘갤럭시 S10 5G’ 모델을 내달 5일 정식 출시하기로 하면서 이통사들이 서둘러 요금제 설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주 초까지 5G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산업 구조상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요금제가 통과한 후 신고제 형식으로 요금을 내놓는다.

SK텔레콤은 5일 정부에 5G 요금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윤익관심 의사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한 후 해당 요금제가 고가로 구성됐다면 반려했다. 당시 SK텔레콤이 내놓은 5G 요금제는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3종이다. 이후 SK텔레콤은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5만 원 선의 5G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경우 내달 3일을 요금제 발표 날로 잡고, 그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5만 원대 5G 요금제보다 저렴한 3만~4만 원대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5G 통신망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미국 버라이즌의 9만~12만 원대 5G 요금제를 예로 들면서 5만 원 요금제면 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중기부, 中소 온라인 수출 지원

4개 분야 253억 투입… 글로벌 B2C시장 진출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53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대행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기반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통해 1858개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그 결과 수출 증가율과 수출 성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p, 13.6%p 상승하는 등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다만 중기부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직접적 수출 역량과 기술의 축적이 미흡하고, 자사 쇼핑몰(독립몰)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출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기반 쇼핑몰 보유 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5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통해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을 신설했다.

이재훈 기자 yes@

# '이중 포장' 줄이고, '뽁뽁이'는 종이로 교체 유통가 '쓰레기 줄이기'大作전

일회용 포장재 과소비 논란이 커지면서 배송 서비스가 많은 홈쇼핑과 이커머스 업체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과 이커머스 업체들의 친환경 포장재 사용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1일 서울 강동구청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동구청이 17개 주민센터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면, 현대홈쇼핑은 매일 1회 아이스팩을 수거한 뒤 세척해 식품업체 등에 무상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은 이미 지난해부터 아이스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객이 아이스팩 수거 신청을 하면 택배업체가 직접 방문 회수해 현대그린푸드 등 협력사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택배 비용은 현대홈쇼핑이 전액 부담하고 참여 고객에게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인 'H포인트' 5000포인트도 제공한다.

CJ ENM 오쇼핑은 지난해 6월 종이 테이프부터 종이 완충재, 종이 행거박스 등과 같은 종이 포장재를 이용하고 있다. 울타리는 식품 일부 상품에 '친환경 보냉 패키지'도 도입했다. 친환경 보냉패키지는 박스의 내외부 전체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아이스팩은 물로 채워져 손쉽게 분리

일회용 포장재 과소비 논란 확산되자  
현대홈쇼핑, 아이스팩 회수·재활용  
CJ오쇼핑, 친환경 보냉패키지 선보여



현대홈쇼핑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사진제공 현대홈쇼핑

배출이 가능하다. 롯데홈쇼핑 역시 신선식품 배송에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홈쇼핑 업체의 친환경 행보는 최근 상품 과대 포장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 빨라지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은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냉장 및 냉동 보관이 가능한 포장재에 아이스팩까지 사용해 과대 포장 사용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포장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환경부는 포

장 폐기물을 줄이고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포장'을 줄이는 한편, '뽁뽁이'를 재활용이 쉬운 종이 완충재로 바꾸고 아이스팩의 친환경 제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유통가의 친환경 행보는 신선식품 배송을 주로 하는 스타트업에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티로폼 및 아이스팩 수거 서비스를 도입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박스를 직접 수거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100% 재생지로 제작한 에코박스를 도입해 냉장 포장재를 개선했다. 이어 14일부터는 아이스팩 내부에 물을 넣어 얼린 친환경 아이스팩을 테스트 중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 포장재(지퍼백)와 재사용 박스 등을 내달 도입할 계획이다.

헬로네이처 역시 물을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을 마련해 상반기 내에 사용할 방침이다.

쿠팡도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백을 이용하고 완충재 역시 분해가 쉬운 소재를 사용하며 아이스팩도 물을 이용한 제품을 테스트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포장과 관련해 작년보다 다양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재활용 가능한 박스의 규격을 다양화해 부피를 종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꽃으로 설렘 충전"

현대백화점은 신촌점 유플렉스관 12층 문화홀과 13층 하늘정원에서 5월 말까지 '더 플라워: 설렘충전소' 꽃 전시회를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꽃을 소재로 총 4개의 방과 22개의 공간에 '사랑·고백·영원의 설렘'이라는 테마로 꾸며지며, 13층 야외 공간엔 5명의 플로리스트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업실도 함께 연출해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을 운영한다. 입장료는 현장 구매 시 성인 1만5000원, 온라인 예매 시 1만2000원이지만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농심



흥행 돌풍

지난달 라면 매출 12위 올라  
업계 '건면시장 확대' 기대감

농심의 신제품 '신라면 건면'이 초반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24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농심의 '신라면 건면'은 지난달 라면 매출 순위에서 12위에 올랐다. 1위는 농심 신라면, 2위는 농심 짜파게티, 3위는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이다.

신라면 건면은 지난달 9일 출시돼 다른 제품보다 열흘 가까이 판매 기간이 짧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위 안에 든 것이라는 업계의 평가다.

실제 신라면 건면은 출시 후 40일 만인 20일 기준으로 1000만 개 판매를 넘어섰다. 이는 최근 가장 인기를 끈 신제품인 오뚜기의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능가하는 인기도. '쇠고기 미역국 라면'은 1000만 개 판매까지 두 달이 걸렸다.

농심 측은 "계속되는 주문에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라면 건면 효과로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도 상승했다. 매출 기준 지난달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54.8%로, 지난해 연간 점유율 54%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2위 오뚜기는 24%, 3위 삼양식품은 12.3%, 4위 팔도는 8.9%였다.

농심은 '신라면 건면'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달부터 녹산공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해, 생산량을 2배로 늘려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라면 건면은 농심이 '신라면 라이트'라는 프로젝트로 2년간 연구 개발해 만든 신제품이다. 3세대 신라면으로 불리는 신라면 건면은 튀기지 않은 건면에 신라면 특유의 국물을 그대로 구현해 맛과 칼로리를 동시에 잡았다.

신라면 건면의 흥행은 건면 업계 전반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 건면 시장 1위는 풀무원으로, 라면 시장 1위 업체인 농심의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건면 시장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봄, 봄, 봄...봄 정기세일이 왔어요"

롯데 '갤럭시S10' 44만 원  
신세계, 와인 창고 대방출 등  
주요 백화점 29일부터 세일



현대백화점 '사봄제' 정기세일.

주요 백화점이 29일부터 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7일간 롯데쇼핑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봄 정기세일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봄 정기세일은 롯데쇼핑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주차별로 준비해 1주차에는 '빅(BIG) 브랜드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세일 시작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나올간 삼성 갤럭시 S10을 초특가에 선보인다. 해당 행사는 일별 40명 한정으로 갤럭시S10을 정상이 105만6000원 대비 60%가량 저렴한 44만 원에 판매한다. 행사 2주 차에는 롯데백화점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한 프로모션 행사도 준비했다. 4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별 2000명 한정으로 패션 상품군 10% 할인권을 증정하며,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엘포인트 즉시당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 소공동 본점은 나이키와 푸마 등 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최대 30%, 금강제화와 텐디 등 잡화 상품을 20% 각각 싸게 선보인다. 골프용품도 본점에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최대

사를 전진 배치해 집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특히 세일 첫 주말은 세일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준비한 만큼 양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사봄제'를 주제로 정기세일을 연다. '사봄제' 기간 △700여 개 브랜드 신상품 10~40% 할인 △직매입 상품 할인을 확대 △세일에 참여하지 않은 200여 개 브랜드 할인 혜택 강화 등을 진행한다. 우선, 700여 개 브랜드의 봄 신상품을 10~40% 할인 판매한다. 세일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코트·카디건 등 간절기 아이템 물량을 작년보다 20%가량 늘렸다. 특히, '10대 특가 상품'을 선정해 압구정 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에서 선보인다. 직접 매입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할인 폭이 적었던 리빙 상품을 직매입해 할인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내달 14일까지 △여행 경품 이벤트(보라카이) △홈퍼니싱 페어 △갤러리아 시그니처 에코백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을 맞이한다. AK플라자 역시 다음 달 14일까지 17일간 전점에서 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세일은 제주도와의 협업을 통해 세일 테마를 '제주를 담다'로 정하고, 전 점포에 제주도 풍경을 담은 포토존 및 전시전 운영, 제주 특산물 판매, 제주도 관련 이벤트 경품행사 등을 연다.

남주현 기자 jooh@

70% 할인 판매된다. 강남점에서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20억 원 규모의 골프대전도 테일러메이드 등 유명 골프 클럽의 가격을 최대 78% 할인된 수준으로 낮춘다. 노원점은 144평 규모의 '나이키 스포츠 메가샵'을 새로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봄 정기세일을 펼친다.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중적인 와인부터 프리미엄 와인까지 3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와인 창고 대방출' 행사를 전점에서 진행한다.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가구, 주방용품, 집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매중드 신세계'를 펼친다.

이성환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은 "봄 정기세일은 연중 세일 참여 브랜드가 가장 적은 만큼 세일 초반 대형 행

<기업 PR>

## 롯데 '플레저박스'·'mom편한' 캠페인

롯데는 소외계층 등 세상의 모든 이웃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롯데가 2013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플레저박스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아 전달하는 롯데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적 자원 봉사 인원도 2000명에 달한다.

롯데 플레저박스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는 생리대 1년치·청결제·핸드크림, 미혼모들에게는 세제·로션 등 육아용품,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점자도서 등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담아 전달한다.

이 캠페인은 롯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일반인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회당 50~60명 이상이 힘을 모아 물품을 상자에 담고 포장 및 배송지연 업무까지 맡는다.

플레저박스 캠페인은 4월 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캠페인은 총 5회로 예정돼 있으며, 연말에는 총 5만 박스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롯데는 '엄마의 마음이 편한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 사진제공 롯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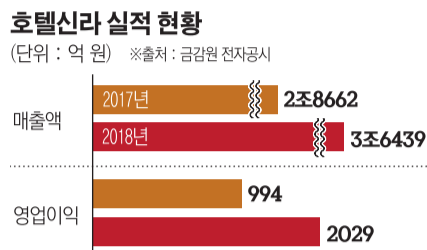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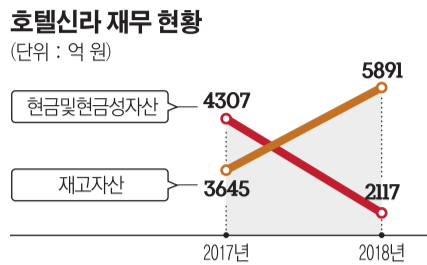
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캠페인은 2013년 사회공헌 브랜드 'mom편한'을 론칭해 양육 환경이 열악한 전방 지역 군인 가족들에게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론칭 첫 해 강원도 철원 육군 15사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소를 오픈했다.

이 외에도 롯데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mom편한 놀이터', 취약계층 산모들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mom편한 예비맘 프로젝트', 워킹맘 사회복지사를 위한 'mom편한 힐링타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현금자산 반토막' 호텔신라, 자금 확보 분주

작년 매출 27% 증가 최고 실적  
재고자산 늘리며 현금자산 줄어  
내달 1500억 사모채 상환 앞두고  
삼성증권에 700억여치 채권 거둬



다. 호텔신라 측은 "회사채 차환 및 운용자금 조달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다음 달 25일 1500억 원의 사모채 상환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모채는 회사가 2014년 4월 발행한 연이자율 3.50%의 무보증 사채로, 올해 남은 유일한 만기 사채이다. 회사는 신규 사모채 발행에 한 달 앞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선제적인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

사채 상환을 보유현금이 아닌 신규 사채로 해결한 점은 적은 현금 보유량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현금자산은 반대로 줄었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14% 증가한 336439억 원, 영업이익은 104.04% 늘어난 2029억 원이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실적이다.

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절반 이상

줄었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현금자산은 전년 대비 103.42% 감소한 2117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유현금 자체는 44억여 원으로 2017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4258억 원이던 단기예금이 2072억 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결과적으로 통칭 기업이 3개월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자산이 대폭 줄면서 당장 값을 돈을 채권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운용자금으로까지 활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금자산이 재고자산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재고자산은 5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63% 증가했다. 그중 고객면 제품 재고가 557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재고자산을 더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호실적을 기록한 호텔신라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금자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전체적인 유동자산은 도리어 5.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금자산이 재고자산으로 이동했다는 점은 유동성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는 1500억 원으로 끝이지만 내년에는 더 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2015년 발행했던 두 번의 무보증 사채 상황이 내년 5월 29일로 예정된 상태다. 상황액은 2500억 원으로, 이로 인해 올해 회사의 현금자산 확보가 지난해보다 더 중요해졌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주주행동주의' 주총서 잇따라 고배

엘리엇·홀드코자산운용 등  
현금배당·사외이사 제안 부결  
KCGI는 주주 자격 인정 못받아  
"올해 성장 원년, 활성화 전망"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내놓은 주주제안 안건이 잇따라 부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대주주를 상대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주주활동 문화가 점점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2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안한 총 8조 3000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대신 이사회 측이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세이브존I&C 주주에서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홀드코자산운용이 낸 현금배당 및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등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

됐다. 강남제비스코 주주에서도 미국 헤지펀드 SC아시아오퍼튜니티가 현금배당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냈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국내 토종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상법상 주주제안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이달 29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KCGI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회사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진칼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 행동주의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남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9년을 주주 행동주의 성장의 원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기관들은 앞다퉈 스투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견권 행사 지침)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이어 올해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한국투자공사 등이 책임투자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KTB자산운용 등 민간 자산운용사도 이른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SK와 BGF리테일, 오리온 등은 대표이사외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주주총에 올렸고 자산 총액 2조 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가 없는 농우바이오, 원익IPS, 한미사이언스 등은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한진그룹도 KCGI의 주주제안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사외이사를 확대하고 유류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룹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을 지난달 발표할 바 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총 시즌은 많은 대주주에게 주주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배당 확대, 이사회 독립성 제고 등을 통해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화학·車 '상승' 바이오·통신 '하락'

코스피 시총 순위 변동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위 유지  
LG화학, 2계단 상승 현대차 제쳐  
LG생활건강은 10위권 첫 진입

시가총액 순위(2019년 기준)

순위	1월 22일	3월 22일
①	삼성전자	삼성전자
②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③	삼성전자우	삼성전자우
④	현대차	LG화학
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⑥	LG화학	셀트리온
⑦	셀트리온	POSCO
⑧	POSCO	삼성바이오로직스
⑨	삼성물산	LG생활건강
⑩	NAVER	NAVER

※출처: 한국거래소

박스피 장세 속에서 업종의 성장 모멘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연초 대비 화학과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바이오, 통신 등은 맥이 무너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증가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시총 톱10은 삼성전자(277조8934억 원), SK하이닉스(55조4010억 원), 삼성전자우(31조1463억 원), LG화학(26조7898억 원), 현대차(26조3880억 원), 셀트리온(25조296억 원), POSCO(22조5814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22조3969억 원), LG생활건강(21조6937억 원), NAVER(20조9313억 원) 등이다.

2개월 전과 비교하면 일부 종목의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업황과 함께 종목별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부동의 1·2위 자리를 유지했다. LG화학은 1월 시가총액 6위였지만 이달 두 계단이나 상승했다.

LG화학 배터리가 중국 신재생에너지 신차 공급 목록에 포함된 데다, 중국의 보조금 제도가 2021년부터 소멸되거나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배터리 업계 기대감에 SK이노

베이션도 1월 19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17위로 올라왔다.

현대차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 어닝쇼크 등으로 지난해 연말 주가 10만 원이 붕괴되면서 시총이 7위까지 밀렸지만, 신형 쏘나타 출시 효과 등으로 주가가 12만 원대로 회복되면서 현재까지 시총 5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1월 13위에서 현재 1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바이오주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때 현대차를 앞지르며 시총 4위까지 올라섰지만 각각 6위와 8위로 물러선 상태다.

LG생활건강은 1월 시총 17위에서 2개월 새 9위로 급등했다. 2011년 4월 증시에 상장한 LG생활건강이 시총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합병(M&A)으로 규모를 확장하며 실적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주가 역시 지난해 말 110만 원에서 이날 138만9000원으로 뛰었다.

SK텔레콤은 1월 시총 11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신공장 GMP시설 승인·60개 신약 허가 주력"

### CEO 인터뷰

백병하 한국유니온제약 대표

신공장 생산량 3배 ↑ 매출 증가 기대  
신성장동력 화장품 원료 사업도 순항



한국유니온제약의 장점은 의약품 전체형 생산가능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력 있는 가격, 품질로 수탁 사업이 가능하고, 신제품 개발 시제

형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사제, 조영제 설비도 완공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신공장에 대해 GMP시설 허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현재 생산 중인 120여 개의 품목 외에 최근에 60여 개 신제품에 품목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공장 완공 후에는 고품질에 생산량도 3배 이상 늘어나 수탁사업, 수출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는 약 60개 신규 품목에 대해 판매허가를 받는 것이다. 현재 에토리릭시브정제, 보리코나졸정제, 리파시민정제 등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출시 예

정 제품인 오메가연질캡슐, 알리트레티노인캡슐, 사포그렐레이트서방정, 에토리릭시브정, PDRN주사 등에서는 분야별 영업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화장품 원료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내달 TB4(티모시베타4)를 기반으로 원료 공급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아델라-폴라젠과압타머, 엑소솜을 결합한 신물질도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 부문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압타머를 활용한 유방암표적조영제는 상반기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임상 1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지방 관련 표적 이식제는 내년 임상 1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건강식품 사업은 지난달 러시아와 현지 생산공장 MOU를 맺는 등 구체화 단계다.

백 대표는 "지난해 신공장 신축, 바이오 신약 관련 비용으로 이익을 대부분 투자해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향후 투자 부문에서 이익이 실현되면 주주들에게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3월 24일 17:00, KST)

전일 대비: -5,000원 (0.1% ▼) | 6개월 대비: -2,957,467원 (39.6% ▼)

전일 대비: -800원 (0.5% ▼) | 6개월 대비: -102,734원 (-40.0% ▼)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84,600	-2,900 (1.5% ▼)	모네로	59,200	-550 (0.9% ▼)
리플	348	-3 (0.9% ▼)	비트코인골드	14,610	150 (1.0% ▲)
라이트코인	67,300	-1,300 (1.9% ▼)	이더리움 클래식	5,390	-115 (2.1% ▼)
대시	103,300	800 (0.8% ▲)	퀀텀	2,900	-61 (2.1%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늘어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집값 거품' 빠질까

12개→62개 항목 세분화  
 총사업비를 단순하게 나눠  
 실제 원가 모르고 민간은 제외  
 원가공개로 건설사 압박 뎀  
 공공분양 꺼려 집값 오를 수도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21일부터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민간 아파트도 제외돼 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택지비(3개)와 공사(5개), 간접비(3개), 기타 비용(1개) 등 4개 항목, 총 12가지였다. 공사비 항목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에 공중과 공사비 등 5가지를 공개해왔다.

앞으로 공사비는 모두 51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공시해야 한다.

토목공사비는 토공사·흙막이공사·옹벽·우수·우수·공동구·석축공사 등 13개 항목을 공개하고, 건축공사비 역시 공동기설공사·가시설물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 외에 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

※ 출처: 국토교통부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12개 항목	구분	62개 항목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공사비(5)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중 그 밖의 공사비	→	공사비(51) 토목(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등 건축(23): 공동기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평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등 기계설비(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우수·배수설비공사 등 그 밖의 공중(4):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송전공사 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등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등 23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주택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항목을 늘린 것만으로는 진정한 '분양원가 공개'와는 거리가 멀고 집값 거품을 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나

오고 있다.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도급계약을 맺거나 총사업비를 단순 공식으로 나눠 공개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토지비에 대한 원가 공개가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세 가지 요

소인 토지비, 재료비, 인건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토지가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전국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분양가의 땅값 비율은 2017년 1분기에 30%에서 2~4분기 각각 39%, 45%, 52%로 급등했다.

여기에 땅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도 따라 올해 공시가격 및 매입가는 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결국 정부나 시민단체가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토지조성 비용 역시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들을 압박하면 공공택지 분양을 꺼리게 돼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경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신철 기자 camus16@

## “돈가뭄” 지역 SOC... 민간투자 활성화가 답

건설산업 연구원 보고서  
 정부 예산 연 평균 7.5%씩 줄어  
 노후 인프라 개보수 민자 유치

예산이 축소된 지역의 SOC 사업 대안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통해 지역 SOC 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면 민간의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 인프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SOC 투자 정책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SOC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방안이다.

박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SOC 예산이 2015년 26조1000억 원을 정점으

로 △2017년 22조1000억 원 △2018년 19조 원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서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2018년 429조 원에서 2021년에는 500조 원으로 늘리는 등 연평균 5.8%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7.5%씩 감액돼 2021년에는 16조2000억 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지역 23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20조5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예타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의 해당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지역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원도 내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중은 23%를 차지하

고, 경남의 전체 교육시설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67.8%, 50년 이상 된 시설도 37.6%에 이른다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민자사업이 침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건수와 민간투자비를 보면 2010년 51건(7조5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6건(1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민자사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민자사업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OC 시설의 공급 책임이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도 공공부문에서 계획되고 통제돼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높은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금주의 분양캘린더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 467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주 분양은 전부 지방에서 이뤄진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파트시티1·2단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

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 등이다.

당첨자 발표는 8곳에서 진행된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안강럭스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한울에이치밸리움B동',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주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1곳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

구로구 구로동 '승윤노블리안', 경기 시흥시 율곡동 '시흥윌곡역블루밍더마크' 등이다.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견본주택 개관 소식이 많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경기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 등 13개 단지가 오픈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25 (월)	발표	전남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안강럭스나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동외(영구임대)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 (~3/27)		
	계약	경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승윤노블리안 (~3/27)		
				시흥시	윌곡동	시흥윌곡역블루밍더마크 (~3/27)		
				용인시	남시면	e편한세상용인파크뷰(1BL) (~3/27)		
				평택시	합정동	평택뉴비전엘크루 (~3/27)		
	광주	남구	임안동	광주호천1(행복주택) (~3/28)				
	3/26 (화)	발표	강원	전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지안스르가1순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한울에이치밸리움B동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첨단H1(창업지원주택)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첨단H2(행복주택)		
광주				광산구	월계동	광주첨단H3(행복주택)		
3/27 (수)	접수	강원	동해시	천곡동	인천	연수구	북동동	대전아파트시티1단지(A1)1순위
					대전	유성구	북동동	대전아파트시티2단지(A2)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A2-1)1순위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급매’ 팔리며 부동산 반짝 상승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일부 대단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서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문가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예년에 비해 낮은 거래량으로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을 알리는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천안·포항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

미분양관리지역 중 충남 천안시와 경북 포항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전국 38개 미분양관리지역 중 최근 1년간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 지역은 천안시 등 17곳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1곳은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천안으로 지난해 1월 4282가구에서 올해 1월 1322가구로 2960가구 줄어 69.1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가 896가구에서 375가구로 58.15%(-521가구, 동탄2신도시 포함), 충북 음성군이 653가구에서 310가구로 52.53%(-343가구)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38개 미분양관리지역 중 지난해 1월 기준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

이었던 13개 지역에서는 천안에 이어 경북 포항시 미분양 아파트 감소율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월 2146가구에서 712가구가 줄어 올해 1월 1434가구로, 33.1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천안이나 포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환승 수요가 꾸준히 미분양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수주 ↓·경쟁자 ↑... 부동산 신탁 부실 우려

3곳 예비인가 총 14개사로

부동산신탁사들의 고민이 커졌다. 시장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유지되던 국내 부동산 신탁사 11개사 체제는 올해 14개사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 등 신규 부동산 신탁사 3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줬다. 향후 6개월 이내 본인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신규 신탁사들이 올해 내 영업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업의 높은 수익성을 만드는 ‘핵심’으로 금융업계가 신탁업 진출에 관심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사업성 낮은 비수도권 사업장이 주로 차입형을 이용하는데, 최근 비수도권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시장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임대료 걱정 없는 '장기안심상가' 확대

서울시, 임대료 인상 연 5% 이하면 리모델링 3000만원 지원  
내달 19일까지 접수 40곳 선정 2020년 200곳으로 늘리기로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 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돼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연 1%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 공고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19일까지 하면 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색으로 물든 봄 24일 경남 밀양시 밀양강 둔치에서 열린 '2019 밀양 홀리하이(Holi) 색채 축제'에서 참석자들이 색색 가루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뺑소니 15점

---

125점 면허 정지

## “교통사고 낸 운전자 각각 벌점 합산 정당”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벌점을 합산해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 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이유로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개인택시 운전자였던 이 씨는 도로교통법상 1년간 벌점·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되자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손괴사고 후 미조치 등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벌점 합산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교통 사고의 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원고의 합산 벌점은 115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합산의 해석은 '교통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효진 기자 js62@

## ‘바지사장’ 유흥업소 탈세 잡는다

국세청, 전국 21곳 세무조사  
명의위장 관련 정밀 분석 나서

국세청이 사업자 명의 위장과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명의 위장 사업자(일명 바지사장)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룸살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

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뀌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이나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 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 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 혐의를 정밀 분석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 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명의 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법적 조사로 전환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검찰, KT ‘쫄개기 후원’ 수사 착수

불법 정치후원금 돌려받으며 착복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의 ‘쫄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과 홍성준 약탈경제반대 행동 사무국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KT 임원들이 정치권에 불법 제공한 후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이른바 ‘2차 횡령’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진정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의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의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과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수 수사에서 추가 단서가 나올 경우 쫄개기 후원금 의혹이 채용비리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약을 차려입다

PART1. 설악이 있는 패션 - 시니어 시크의 스타일  
PART2. 체형을 알고 패션을 선택하면, 스타일 백전백승  
PART3.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옷장 정리 꿀팁  
PART4. 내가 바로 시니어 패션 리더 - 시니어 모델 소은영, 핫한 모델 김철두  
PART5. 패션 핫 아이템 '항수' - 스타일의 완성, 항수를 입다  
PART6. 해외 시니어숍 콜릭 - 시니어를 사로잡을 세계의 패션 브랜드  
PART7. 동년기자들의 패션 단상

월레이징 투석 시작하면 폐가망신은 멍! "만성콩팥병에 절망 마세요"

때론 유명인사의 죽음이 사인이 된 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프리디 마큐리의 에이즈나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암이 대표적이다. 중장년들은 신부전증으로 유명을 달러간 가수 베토를 떠올린다. 비만 병환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인이 전해지면서 이 병은 집 기동부리 뽑아 병원을 대야 할 만큼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하지만 예외는 혈액투석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1966년 사망했는데, 국내에 인공신장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5년 수도권병원에서였다. 일반인이 쉽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전문의들 또한 이런 선입견에 반기를 든다. 신장병은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촌 먹고 입고 잘 수 있으면 끝 더 이상 무슨 필요?

살이 즐거운 건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다. 그러나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쉽지 않다. 살고 싶은 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대응 살기 심상이다. 이럴 때 살이란 위대한 곡예에 가깝다. 곡예 역시 진땀을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전신훈 수 있다. 하지만 이왕지사 한 번 태어난 인생, 심란한 곡예보다는 평온한 활로로 삶을 즐기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을 보라.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남들이 어떻게 살건, 뭐라 하건 상관없다. 내 방식대로, 내 지향대로 산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생의 '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다 다르다. 성공대학교 교수 연대회

소통과 공감을 위해 다시 청춘을 노래하다. 8000대의 아이콘 조창현, 송시현, 이범학

'실류' 7인 예술가미 미치광이 같은 예술혼. 전라 작가 진공재, 권기호. 태운 인생을 말하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근대건축물의 보고, '인천개항누리길'을 걷다

전철 1호선을 타고 종착역인 인천역으로 간다. 전철 안에서 시간여행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인천역 앞에 있는 화려한 퍼무를 통과하면, 100년대 말 인천 개항 시절의 풍경이 펼쳐지는 상상 말이다. 실제로 하루, 나머지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머니테크 집주인도,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용 88㎡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밥상

올해이드 사할음식 보리누룽지와 봄나물로 차린 향긋한 제철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장갑호 전 이집트대사관 대사 탐라국 왕자님께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stoday.co.kr

# 2000년 '모바일 게임' 개척...글로벌 무대 히트 제조기



## 시작부터 해외시장 겨냥 10여 개국에 거점

### 모바일 게임 선도

게임빌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단어가 낯설던 2000년에 설립됐다. 국내외 모바일게임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모바일게임 NO. 1'을 목표로 지금까지 매진해 오고 있다. 올해로 만 19세, 성년을 맞은 게임빌은 창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 공략을 해왔다. 2006년에는 국내 업계 처음으로 미국 현지 법인인 '게임빌 USA'를 설립했으며 이후 게임빌 재팬, 게임빌 Southeast Asia 등을 설립했다. 지난해 게임빌은 유럽지역 법인을 오픈하면서 전 세계 10여 개 주요 국가에 거점을 마련했다. 전 세계 150여 명에 달하는 해외 운영 규모를 갖춰 완벽한 현지화와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운영 체제를 구축했다.

글로벌 리딩 퍼블리셔로 자리 잡은 게임빌은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100% 활용한 게임을 선보였다. 독창적 아이

### '제노니아' '에어핑크' 등 히트 경쟁사 '컴투스' 지분 인수로 국내외 시장서 시너지 확대

디어로 세계를 놀라게 한 '놈', '물가에 돌탕기기'와 같은 초기 게임들을 비롯해 '제노니아 시리즈', '에어핑크', '핀치히어로' 등의 글로벌 히트작들을 대거 선보여 왔다. 또한 '별이되어라!', '피싱마스터', '크리틱아: 천상의 기사단', 'MLB 퍼펙트 이닝' 등의 스테디셀러 브랜드들도 출시 이후 장기 흥행 중이다.

게임빌은 2009년 7월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모바일 게임 경쟁업체로 꼽혔던 컴투스의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 주주에 올라 국내외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토종

모바일게임사 중 이례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지닌 컴투스와 게임빌의 리딩 글로벌 퍼블리셔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양사의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약 60%(게임빌), 80%(컴투스)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빌과 컴투스는 지속적으로 시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2014년에는 양사 모바일게임 통합 플랫폼 '하이브'를 출범했으며 양사의 게임 간에 크로스 프로모션, 최근에는 양사의 해외 지사 통합 작업 등으로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게임빌이 상반기 중 컴투스가 위치한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으로 사육이전도 예정되어 있어 지리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지는 만큼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0.1 게임빌 설립

2008.8 '제노니아' 출시

2009.7 코스닥 시장 상장

2013.11 모바일게임사 '컴투스' 인수

2014.2 '별이 되어라' 출시

2014.5 'MLB 퍼펙트 이닝' 출시

2014.6 게임빌-컴투스, 글로벌 모바일게임 통합 플랫폼 '하이브' 출범

2015.11 '크리틱아: 천상의 기사단' 중국 출시

2018.1 '로열블러드' 출시

## 현지 마케팅 집중 '탈리온' 동남아·日 매출 상위권

### 글로벌 순차 출시 전략

게임빌은 지난해 9월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는 MMORPG '탈리온'을 시작으로 글로벌 원월드 순차 출시 전략을 택했다. 출시 시기에 맞춰 현지에 마케팅 및 역량을 동원해 보다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9월 동남아 출시와 10월 일본 출시 당시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탈리온'은 출시 초반 동남아 지역의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 주요 오픈 마켓 매출 순위 10위에 올랐다. 특히 일본에서도 애플 앱스토어 매출 7위, 구글 플레이 매출 9위까지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 실시한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앱스토어 매출이 20위까지 급상승하며, 장기 활약까지 예고했다. 이 게임은 특히 월 최고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며 일본에 이은 출시

### 업데이트로 장기 활약 예고 러시아서도 호평 순위 급등 '프로젝트...' 등 신작도 기대



국가에도 흥행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서아시아 시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러시아 시장에 출시해 호평 속에 매출 순위 또한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라인업 중 글로벌 흥행 기대감이 높은 신작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유명 레이스 게임 IP를 활용한 신작 '프로젝트 카스 고' 등 다양한 출시 라인업이 대기 중이다.

올해에는 게임빌의 대표 IP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의 부활도 앞두고 있다. '게임빌 프로야구'는 2002년 시작해 글로벌 누적 7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바일 야구 스테디셀러다. 새롭게 부활하는 게임빌 대표 IP로 과거의 감성을 살려 비라이선스 캐주얼 판타지 야구 게임 장르를 다시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 '별이되어라·빛의 계승자' 등 게임차트 역주행

### 다양한 장수 타이틀

게임빌은 모바일게임회사답게 글로벌 시장에서 5년 넘게 흥행 중인 타이틀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꾸준 히 이어가고 있다.

### 유저들과 지속적인 소통 업데이트·프로모션 등 반영 '메가 히트작' 개발 역량 집중

'별이되어라'의 경우 서비스 5주년을 돌파한 현시점에도 국내 양대 마켓 매출 상위권을 오르내리며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장기 흥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빌은 '빛의 계승자'를 통해서도 역주행 능력을 입증했다. '빛의 계승자'는 공식 카페를 통한 유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발팀이 직접 소통하는 '개발팀 이야기'와 'GM 이야기' 게시판을 운영하며 유저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매출 순위도 차트를 역주행 해 애플 앱스토어 30위권, 구글 플레이 80위권에 오르며 앞으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게임빌 관계자는 "올해는 연초부터 '탈리온', '엘룬' 등 기대작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며 시작한 만큼 어느 해보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실적 반등을 넘어 글로벌 메가 히트작을 만들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선물 NH농협카드



## 다양한 농업·농촌 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민 행복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 미세먼지연구소 설립...가전 라인업 다양화



삼성전자는 미세먼지연구소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 필터 경쟁력에 주목, 가전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다양한 가전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월에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미세먼지연구소를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미세먼지연구소를 통해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부터 측정·분석, 포집과 분해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이클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연구소가 속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연구에 기초가 되는 저가·고정밀·



삼성전자의 미세먼지 해결가전인 공기청정기 '삼성 무풍큐브'. 사진제공 삼성전자

초소형 센서 기술 개발은 물론, 혁신 소재를 통한 필터 기술, 분해 기술 등 제품에 적용할 신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필터 경쟁력에 주목해 차별화된 기술로 가전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다양한 가전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2014년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를 출시한

이래, '필터 하면 삼성!'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왔다. 이 같은 필터 기술로 공기청정기 '삼성 무풍큐브'를 비롯해 건조기 '그랑데',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 청소기 '삼성 제트' 등 미세먼지 시대의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조사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 요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라고 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혁신 역량 투입한 '토털 청정 솔루션'으로 건강 가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LG전자가 22일 휴대용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모델이 자동차에서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전국 학교에 대형 공기청정기 1만대 보급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LG가 미세먼지 방지 및 공기질 개선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슈를 선점해 가고 있다.

먼저 LG유플러스의 IoT공기질알리미는 실시간으로 집안 공기질 상태를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바깥 공기와 비교해 적절한 환기 시점까지 알려준다. 고객은 IoT공기질알리미로부터 측정된 값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24시간 켜놓을 필요 없이 적정 시점에만 운용할 수 있어 필터 교체 비용과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LG전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시장에도 진출했다. 퓨리케어 미니는 듀얼 인버터 모터, 토네이도 듀얼

청정팬을 탑재했다. 작은 크기임에도 포터블 PM1.0 센서로 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공기 질 분야와 관련해 LG는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LG그룹은 전국의 초·중·고교에 LG전자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 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지원되는 LG유플러스의 사물인터넷(IoT)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스피커까지 합치면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정은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진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7만2728개 교실 중 41.9%에 해당하는 11만4265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LG는 보급이 시급한 저학년 교실 등에 먼저 설치할 계획이다.

## 글로벌 수소사회 주도 미래 경쟁력 강화



21세기 들어 자동차 기업에 '친환경'은 숙명으로 다가왔다.

현대자동차는 일찌감치 글로벌 수소사회 진입을 포함한 친환경차 전략을 앞세워 다각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친환경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예컨대 친환경차의 궁극점과 관련해 다양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대차의 핵심 전략은 다양하다. 주요 경쟁사들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사이에 두고 자사(또는 자국)의 이익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안정적 기술로 성공적인 양산에 나선 전기차는 물론,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한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이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14종을 운영 중인 현대차는 2025년까지 38가지의 친환경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현대차의 넥소. 사진제공 현대차

양산이라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기술과 함께 주행 가능거리 600km에 육

박하는 수소전기차 기술 두 가지를 보유 중인 자동차 회사는 사실상 세계에서 현대차가 유일하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친환경차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2025년까지 38가지의 친환경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14종을 운영 중인 현대차는 앞으로 7년 안에 이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사실상 현대차 브랜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운영한다는 것. 고객이 친환경차를 선택할 때 차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준중형 세단부터 대형 SUV까지 전 차급에 친환경차를 운영,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게 목표다.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이 베트남 짜빈성 룡간 지역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포스코는 매년 설비투자 전체 예산의 10%를 환경개선에 투자,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제공 포스코

## 신재생 에너지·숲 복원... '사회적 가치' 창출



SK그룹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친환경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 하자는 '행복 창출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경제적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기업이 어떻게 더 많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결국 이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이 IT 제품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환경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민을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K그룹은 에너지 LNG, 태양광 등 친환경·신재생 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 CLX에는 1조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석유제품 생산을 늘리는 VRDS(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를 건설 중이다.

SK에너지는 기존 아스팔트보다 품질이 개선된 프리미엄 아스팔트를 개발했다. 프리미엄 아스팔트는 낮은 열로 시공이 가능하고 수분 저항성도 개선돼 시공 단계에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와 영향이 있는 배출가스가 대폭 줄어든다.

이밖에 SK그룹은 사업구조와 연계된 사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구온난화 대응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선정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이 그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SK는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 측정용 그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202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축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적극 나섰다.

포스코는 1월 25일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MOU)'을, 2월 25일 경북도-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협약'을 차례로 맺었다. 특히 포스코가 주력하는 것은 2차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이다.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코는 2021년까지 1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질소산화물 배출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선택적 촉매환원(SCR) 설비 확대 및 신설에 집중한다. SCR은 연소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질소와 산소 등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전환시키는 환

경설비로, 65~85%의 저감효과가 있다.포스코는 내년까지 소결로 3기에 2000억 원, 2021년까지 부생가스 발전시설 15기에 1300억 원을 투입해 SCR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한 부생가스 발전시설 6기는 2021년까지 폐쇄하고, 3500억 원을 투입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발전시설로 대체할 방침이다.

철강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투자도 이뤄진다. 현재 먼지가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밀폐식 구조물인 사일로(Silo)를 포함해 179만 톤 규모의 33개 옥내저장시설을 운영 중인데, 내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40만 톤 규모의 사일로 8기 등 옥내 저장 시설 1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슬래그 냉각장 신설, 환경집진기 증설 등에도 9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포스코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약 35%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는 매년 설비투자 전체 예산의 10%를 환경개선에 투자해왔다.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된 두산중공업의 풍력발전기. 사진제공 두산그룹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와 폐열회수 시스템을 개발해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 기후변화 선제 대응...친환경 기술 인정받아



두산그룹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녹색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과정의 환경영향 감축에서부터 녹색 기술 개발 등 적극적으로 환경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해상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환경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기술과 친환경 발전소 연소 기술 개발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저탄소 기업문화 확산에 공헌해온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기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리딩 그린 컴퍼니'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기업활동 전반에 EHS(환경·보건·안전) 경영 방침을 수립했다. 선진 배기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 확대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및 공정 운영,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터널현장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대회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두산건설은 본선에 진출한 15개사 23건의 진출 사례 중 최고상을 수상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기술 역량을 인정받았다.

##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환경개선 앞장



LG디스플레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주, 구미 공장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인증을 취득해 운영되고 있다. 중국 내 사업장 역시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체계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 부서별 환경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사 환경 경영 및 운영 목표 18개 중 11개 항목의 목표를 달성했다. 미달성 항목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분석,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선도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 폐유

리 필름 분리 기술 개발로 폐유리 재활용률 100%를 달성했으며, 펄프 재생기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재생펄프의 원료 사용을 극대화했다. 이 외에도 구리를 회수하는 시스템, 보호필름 섬유 원료 기술 발굴 등을 기반으로 한 자원 회수 및 유상판매 시행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자원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도모했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LG디스플레이는 매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내년까지 2014년 배출량 대비 12.6%를 감축하는 단기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2014년 배출량 대비 54.6%를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병행해 LG디스플레이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 원인인 SF 6가스를 NF 3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대대적인 환경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의 공기과학연구소는 공기청정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미세먼지 줄이는 공기과학연구소 개소



LG전자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공기과학연구소를 열었다. 공기과학연구소는 제균 등 공기청정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유명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과도 협업 중이다.

이곳에서 개발되는 핵심기술들은 △플리케어 공기청정기 △히센 에어컨 △히센 제습기 등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 제품 전반에 적용된다.

LG전자는 2017년 11월 광주광역시와 손잡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뿐 아니라 에어솔루션 제품의 기업간거래(B2B)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LG전자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LG전자는 LG베스트샵에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기 가전 제품들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연계 판매해 가정 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15년 무상보증)은 300W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여기서 발생하는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해 주는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된다. 일반 주택은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나다.

효율성 또한 뛰어나다.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면 월평균 33.3kWh(하루 3.7시간 발전 기준)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870리터 LG 디오스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의 월평균 소비 전력(30.5kWh)과 비슷한 수치다. 태양 에너지만으로 최신 냉장고의 소비전력을 공급받는 셈이다.



LS산전 직원이 일본의 태양광 발전소 모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LS



효성이 개최한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그룹

## 첨단 케이블·스마트 그리드로 에너지 효율 '업'



"공행공반(空行空返). 행하는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 올해는 실행력을 강화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1월 신년사에서 주력 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LS 주요 계열사들은 친환경적이고 전기를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LS전선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첨단 케이블을 이미 개발했다. HVDC(고압직류송전) 케이블을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해 2013년 덴마크 전력청의 HVDC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 국내 최초로 수출했다. 초전도 케이블에서도 LS전선은 세계 최고 용량, 최장 길이의

실증을 끝내고 상용화 준비를 마쳤다. 2016년 제주 초전도센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류 154kV급 초전도 케이블 1km를 실제 계통에 연결해 운용했다. 2015년에는 세계 최초의 DC(직류) 80kV급 초전도 케이블 실증을 완료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DC(직류)와 AC(교류) 기술력을 모두 확보한 회사가 됐다.

LS산전은 소규모 지역에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전념한다. 그 일환으로 일본 홋카이도와 국내 부산시 등에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한 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작년 9월에는 하나마즈키 태양광 발전소 수주를 따내는 등 일본 메가솔라 시장에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S니모동제련은 온산제련소에 생산 전 과정을 통선으로 연결해 공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 친환경 소재 개발·수소충전소 사업



조현준 효성 회장은 "친환경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확고한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며 "친환경 제품 개발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은 친환경 경영 방침 실현을 위해 '그린 경영 Vision 2020'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함께 친환경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7월 국내 스타트업 플리츠마마와 손잡고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가방을 선보였다. 플리츠마마의 닛트플리츠백 1개에는 500ml 생수병 16개에서 추출한 실이 사용되는데, 원단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양 그대로 뽑아내는 방식이라 자투리 원단도 남지 않는다. 플리츠마마

가 만든 친환경 가방에는 효성티앤씨가 개발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이 사용됐다.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톱 수준의 에너지 솔루션 공급업체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효성중공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 국내 시장 점유율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선도 업체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사업 부문 매출도 5배 이상 늘어났다. 효성 중공업은 향후 글로벌 ESS 시장에 적극 진출, 5년 내에 글로벌 Top 3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수소충전소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 테크노파크와 광주 자동차부품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4곳(안성·백양사·성주·연양) 등의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월 초에는 여의도 국회 및 서울 강동구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도 수주하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 전국 217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무료 설치



한화그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경영을 위해 비즈니스와 연계한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태양광 모듈 및 발전 사업은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보완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해피션사인캠페인’은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전국 217개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했다. 총 1527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 복지시설의 전기료를 절약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300kW 규모로 30여 개 기관에 3~18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복지기관은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기료를 절약하고 아낀 전기료를 다른 복지서비스에 사용한다. 태양광 300kW 용량은 연간 약 6000만 원씩 20년간 12억 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한화 관계자는 “해피션사인 캠페인은 단순히 전기



한화그룹 ‘해피션사인 캠페인’ 사진제공 한화그룹

료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 효과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해피션사인 캠페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2013년에 중국 후베이성 우평현 지역의 위양관전 초등학교, 2015년에 청하이성 다통현 지역의 시에거우상 희망학교에 30kW 규모의 지붕형(Roof-Top)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 지원했다. 2011년에는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전력망이 파괴된 도호쿠지역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 기내 유입 공기 멸균·이물질 완벽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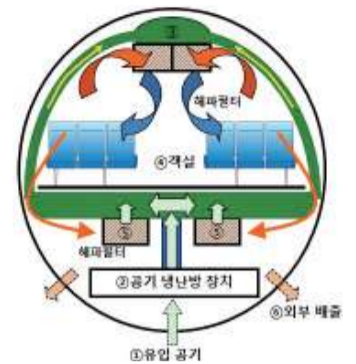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면서 깨끗한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내에 탑승한 고객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기는 최신 기술의 공기 순환 시스템을 장착해 매우 미세한 이물질까지도 완벽히 여과하고 멸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항공기 외부 공기는 기내로 유입되기 전, 엔진 압축기를 통과하면서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다. 이 과정에서 엔진을 통과한 공기는 섭씨 200도 정도로 가열돼 멸균 상태가 된다.

가열 압축된 공기는 대기 상층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존을 산소로 변환시켜 객실에 공급해주는 장치인 오존 정화장치(Converter)를 거쳐 에어컨 팩으로 옮겨져 냉각된다. 이후 고온의 공기와 혼합하여 적절한 온도로 조절하게 된다.

온도가 조절된 공기는 1.01~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먼지와 연기, 박테리아, 극미한 바이러스까지 여과하는 헤파(HEPA·High Efficiency Particu-



대한항공의 공기 관리 시스템 구조 사진제공 대한항공

late Air) 필터를 통해 여과된 기존의 기내 공기와 50대 50 비율로 혼합돼 매 2~3분마다 계속 기내 상부의 흡입구로 유입되고, 기내 하단부의 배출구로 빠져 나가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선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에어 커튼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만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항공기 보잉 787-9의 경우, 총 3개의 필터가 설치돼 있는데 화물칸 벽 내부 혹은 기내 전장, 바닥 하부에 위치해 승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 수소전기 모듈 활용 무공해 발전시스템 구현



현대모비스가 수소전기차에 적용된 수소연료 전지 모듈을 활용해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소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을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독자 기술력을 자동차 분야가 아닌 발전 시스템에 응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친환경 부품 전용 생산공장인 충주 공장에 이 수소 비상 발전기를 구축하고 공장 정전 시 비상 전원, 그리고 계절별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보조 전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소차 부품공장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의 일부를 수소에서 뽑아 내는 것이다.

수소 비상 발전 시스템은 현재 양산 중인 수소전기차 넥쏘에 탑재되는 수소연료 전지 모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용 수소연료 전지 5개를 나란히 병렬로 연결해 최대 450kW급 발전용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 발전량은 충주공장 전체 전력 소요량의 약 7% 수준으로 비상시나 피크 타임시 대응이



현대모비스 충주 수소연료전지공장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가능하다.

이 수소 발전 시스템은 수량조절, 안전성, 저소음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우선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모듈의 수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비상 발전량, 보조 전력량에 따라 필요한 만큼 연료전지 모듈을 연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수소연료 전지 모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은 모두 방폭 설계가 돼 있고 수소 자동 감지, 외부 배기 시스템 등이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도 염려가 없다.

## 국내 기업 최초 ‘CDP 리더 보드’ 편입



한국타이어는 기후변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저탄소 경영전략을 수립해 왔다.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공정 및 경영 전반에 걸쳐 실천해, 비용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투명한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으로 ‘2017 CDP 코리아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찌감치 설비 고효율화는 물론 에너지 재활용 등 다양한 에너지 저감 활동을 펼쳐온 덕이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별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일반 형광등을 전력사용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 해 동안 약 4000여 개의 조명을 교체했다.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연간 5억9000여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로 되돌아왔다.

이 밖에 타이어 제조 및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기존의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최소의 투자로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사진제공 한국타이어

다양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실제로 공기압축기의 공급 압력을 최적화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보일러 세관 및 적정 공기비 유지로 열 공급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연간 21억700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줄이고 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도 단계적으로 줄여내고 있다. 이 같은 체계적인 탄소경영 실적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CDP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탄소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한국타이어는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CDP 리더 보드에 편입됐다.

## 인쇄물 디지털화... 시간 단축·환경 ‘두 토끼’



신세계백화점이 유통과 IT의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디지털과 친환경이 우리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경영 전략을 모색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전자가격표시기(ESL·Electronic Shelf Label)를 올해 점포별로 확대 설치한다. 3월 본점 신선식품 코너를 시작으로 강남, 광주, 영등포, 경기점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전자가격표시기는 과거 종이에 표시했던 상품의 가격 등을 전자 종이와 같은 디지털 장치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중앙 서버에서 상품정보를 변경하면 무선 통신을 통해 매장 내 전자가격표시기에 자동 반영된다. 신세계백화점은 불필요한 인쇄 작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업무시간 단축과 친환경, 두 마리 토끼까지 잡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본점 가공식품 코너에 전자가격표시기를 선보인 이후 한 달을 분석해 보니 업무 시간은 혁신적으로 줄었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매주



신세계백화점 푸드마켓 전자 가격표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평균 3700여 개의 종이 가격표를 교체하는 데 평균 31시간이 걸린 데 비해 전자가격표시 도입 이후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3.8시간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됐다.

친환경 트렌드는 소용 문화도 바꾸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 고객들에게 패션 에코백을 무료로 증정했다. 신세계 에코백은 나태주-용혜원 시인의 시집에 수록된 희망 메시지를 대한민국 대표 서예작가인 담헌 전 명옥 선생의 친필로 디자인해 장바구니는 물론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패션 상품이다.

## 모바일 앱으로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KT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워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KT는 1월부터 서울 550개를 포함, 전국 2000여 개소에 자체 공기질 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에어맵코리아’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코리아’의 경우 미세먼지 수치는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그마저도 평균값이 제공되는 만큼 순간순간 달라지는 미세먼지 수치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반면, KT 에어맵코리아는 10분 단위의 실시간 측정치가 공개된다.

예컨대 에어코리아를 기반으로 한 앱들이 오후 1시에 120 $\mu\text{g}/\text{m}^3$ 의 미세먼지 수치를 공개했다고 하면, 이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의 측정치 평균값을 제공했다는 뜻이다. KT의 에어맵코리아의 경우 오후 1시에 120 $\mu\text{g}/\text{m}^3$ 이라면 10분 전, 혹은 10분 후에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KT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수



KT 모델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에어맵 코리아 애플리케이션과 공기질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모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치는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반면, 에어맵 코리아는 10분 단위로 업데이트한다”며 “측정소가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고, 서울의 경우 측정소 간 간격은 약 1km 내외로 구축해 보다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 맵 코리아는 또 사용자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미세먼지 수치를 비교할 수 있다. ‘일정 관리’에서 장소와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설정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광고심의필 : 2018-1448-004400



# 동성 여행갈때, 정로환!

느닷없는 배탈, 설사로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는 없죠?  
잊지마세요~ 여행갈때 동성 정로환 챙기기

## 배탈, 설사엔 동성제약 정로환이 좋습니다

동성제약 정로환은 위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는 생약성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제로 설사, 식체, 묽은 변, 토사에 효능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로환 당의정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정제 형태로 복용이 간편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국민 정장제, 동성 정로환  
이제 지긋지긋한 배탈, 설사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동성정로환**

동성정로환(120환, 500환) / 동성정로환당의정(48정)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냄새 없는  
정로환 당의정

# “아이돌봄 서비스, 늦둥이 아빠가 가장 반기던데요”

공유오피스 업계 첫 도입...김희영 빌딩블럭스 대표

스타트업·프리랜서에게도 육아 인프라 제공 자부심 느껴  
복클럽·키친... 활발함보다는 편안하고 차분한 공간 지향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출시하려 했을 때 가장 반겼던 입주 회원 중 한 분이 늦둥이 아빠셨어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은 ‘엄마’만이 아니라 일하는 ‘아빠’에게도 매우 필요했던 일인 거죠.”

공유오피스 ‘빌딩블럭스’의 김희영(사진) 대표는 업계 최초로 공유오피스 내 입주 회원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김희영 대표는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 정책이나 사내 어린이집 등 인프라를 누리기 힘든 환경”이라며 “우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면서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빌딩블럭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여성만을 위한 공유오피스’라는 인식이라고 꼽았다. 그는 “기존 공유오피

스들이 주로 IT 업종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유오피스를 만들고 싶었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했고, 아이 있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도 고안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입주 회원의 성비도 여성과 남성이 6대 4 비율이다.

빌딩블럭스는 ‘부티크 공유오피스’라는 정체성에 맞게 기존 공유오피스와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김 대표가 2010년 미국 패션스쿨에서 마케팅을 배운 경험이 빌딩블럭스 색깔에 묻어났다. 제품을 알리기 위한 쇼룸과 포토스튜디오, 크레이터들을 위한 워크숍(Work Shop)과 매테리얼 라이브러리(Material Library) 등을 갖춘 것이 그 예이다. 때문에 패션, 뷰티 분야와 관련 마케팅, 커머스사들이 입주 회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편안한 공간’은 빌딩블럭스가 추구하는 목표다. 빌딩블럭스의 분위기가 스타트업 특유의 ‘활발함’ 대신 ‘차분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다. 김 대표는 “회원들을 위한 맥주파티 등 다른 공유오피스에서 하는 서비스라고 무작정 따라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BB 복클럽’, ‘BB 키친’ 등 책에 대한 감상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등 최대한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음 달에 입주 회원들과 서래마을 ‘르지우’에서 정호준 셰프의 요리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또 다른 목표는 향후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연합체(Alliance)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각자 뚜렷한 개성과 특화된 장점이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너지를 발휘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최근 하와이와 일본에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기사를 보고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처럼 해외 공유오피스와의 협업하며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나눌 방안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빌딩블럭스가 그냥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업종에서 다른 경험을 쌓은 크리에이터들이 공존하는 열린 커뮤니티를 구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예술의전당 신임 사장에 유인택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64) 중앙예술극장 대표를 임명했다.



유인택 사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했다. 극단 연우무대 사무국장,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지컬단장, 청강문화산업대학 뮤지컬스쿨 교수 등을 지냈다.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업국 국장 등을 거친 이른바 ‘문화 운동권’ 인물로도 분류된다. 유인택 국회 사무총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김소희 기자 ksh@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에 정준호



코람코자산신탁은 22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정준호(56·왼쪽 사진) 전 삼성카드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정준호 대표는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친 후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우리금융지주와 삼성카드 리스크 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정 대표는 2003년부터 10여 년간 코람코자산신탁에 몸담은 바 있어 코람코자산신탁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대주주 LF 출신의 차순영(59·오른쪽) 사장도 경영부문장으로 신규 선임됐다. 차 부문장은 1987년 LG사이에 입사해 30여 년간 LG패션(現 LF) 전략 기획실장, LF 경영혁신본부장, 경영지원 부문장 등을 거치며 재무와 관리 측면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LF의 대표적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CJ대한통운, 강서한강공원서 ‘희망나무 숲 만들기’

임직원·장애인·봉사자 등  
포플러 묘목 1000그루 심어

CJ대한통운은 2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한강공원에서 ‘CJ대한통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희망나무 숲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희망나무 숲 만들기는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한강공원 일대에 미세먼지 절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기존 나무심기활동은 물론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행사들이 추가됐다.

봉사자들은 장애인들이 직접 기른 포플러나무 묘목 1000그루를 한강공원 일대에 심고 물을 길어 나무에 뿌렸다. 이번에는 1000그루는 연간 30.2톤의 이산화탄소와 135.3kg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나무도 심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해, 특히 가족 단위 참여자들의 호응이 컸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정원석 한국장애인복지재단 회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김한진 한국그린자원 대표, 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 진형식 누리장애인직업생활센터 소장, 황진우 CJ로지스틱스 레이싱팀 감독 겸 선수(왼쪽부터)가 함께 나무를 심으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CJ대한통운

## 하나은행, 아시안뱅크 선정 ‘AI 챗봇 서비스 최우수상’

KEB하나은행은 2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19 인터내셔널 리테일 파이낸스어워드’에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아시안뱅크’는 하나은행의 하이뱅킹 2.0(HAI Banking 2.0)을 “3D 금융비서가 손님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손님의 의도를 파악해 실제 상품가입까지 도와주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하나은행의 ‘하이뱅킹 2.0’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금융서비스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향후 하이뱅킹을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간편 접속이 가능하고, 빅데이



이병렬(왼쪽 두 번째)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본부장이 존 홀더(맨 왼쪽) 아시안뱅크 런던 가상현실센터 수석 기술위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 부음

▲정형철 씨 별세, 정정옥(용인 흥천교 교사)·송환(자영업) 씨 부친상, 이종완(삼성증권 상무) 씨 장인상 = 24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08

▲윤태욱(전 휘경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씨 별세, 윤소영(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수석)·강석(티몬 마케팅팀장) 씨 부친상, 한종훈(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씨 장인상 = 2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

3010-2262

▲윤남현 씨 별세,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회의원)·영의(전 국민은행 지점장)·영종(LH공사 처장)·영신(주부)·광미(주부) 씨 부친상, 최현술(바탕건축사 감리)·하중훈(LG하우시스 부장) 씨 장인상 = 24일, 전남 해남종합병원 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61-533-4444

▲강정순 씨 별세, 김인규(다비치안경체인 회장) 씨 모친상 = 24일,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장례식장 7층 VIP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51-923-1334

## ‘제주항공 아카데미 2기’ 스타트

제주항공은 22일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 제주대 인문대학 1호관에서 ‘제주항공 아카데미 2기’ 개강식을 가졌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주항공 아카데미 2기에는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재학생 가운데 2020년 2월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 24명이 선발됐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의 특강 △제주항공 아카데미 1기 출신으로 지난해 제주항공에 입사한 선배와의 대화 시간 등이 진행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영규 △전력산업과장 윤요한 △원전환경과장 손호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광주고용센터소장 이준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이호승

◆한겨레신문 ◇국장·단장 △사업국장 김택희 △매거진편집사업단장 박창식 ◇부문장 <편집국> △영상부부장 김보협 ◇에디터·부장·소장 <편집국 신문콘텐츠부> △편집에디터 박정민 <편집국 영상부> △뉴스에디터 박종찬 △제작에디터 이경주 <광고국> △광고기획부장 신의상 <독자서비스국> △영업1부장 안덕규 △영업2부장 장봉국 △판매기획부장 이영

## LG전자, 국립암센터에 정수기 기증

LG전자는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국립암센터발전기금과 ‘암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국립암센터에 △퓨리케어 슬림스탠드정수기 156대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 44대 등 총 200대의 정수기를 기증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준 <디지털미디어국>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겸직) 김재섭 <사업국> △정책사업부장 박용태 ◇부에디터 <편집국 신문콘텐츠부> △편집 천복귀 <편집국 디지털부> △정치사회 부에디터 이순혁 ◇팀장 <편집국> △교열팀장 박정숙 <편집국 신문콘텐츠부> △편집1팀장 김형찬 △편집2팀장 권기순 △전국1팀장 오승훈 △토요편집장 정은주 <편집국 디지털부> △정치팀장 석진환 <편집국 영상부> △뉴스기획팀장 송호진 △뉴스제작팀장 이규호 △시사교양팀장 김도성 △영상기술팀장 박성영 ◇데스크 <편집국 신문콘텐츠부> △경제팀 데스크 조계완 △전국1팀 데스크 최상원 △전국2팀 데스크 김기성 <편집국 디지털부> △정치팀 데스크 이세영

## 신성이엔지 대표에 안윤수 사장

신성이엔지가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고자 클린환경 사업부문의 안윤수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안 대표는 1984년 신성이엔지에 입사해 설계, 영업, 현장 등 두루 경험을 쌓았다. 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승진했고, 국내외 클린룸 산업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로 클린룸의 핵심 장비인 FFU(Fan Filter unit 산업용 공기정정기)의 국산화를 이끌어 2017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현철

부국증권은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박현철 전 유리지산운용 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박 대표는 1986년 부국증권에 입사해 강남지점장, 영업총괄 상무 등을 지냈으며 2012년부터 자회사 유리지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임병학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 로봇산업, 선택과 집중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육성할 4대 로봇산업 분야를 설정한 부분도 아쉽다. IFR에서도 동일한 분야를 2025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로 꼽았다고는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로봇은 대부분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어 언제든지 성장 가능성은 바뀔 수 있다. 이번 발전방안의 목표 중 하나인 세계적인 스타 로봇기업 20개 배출이 비단 4대 로봇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주 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뿌리·섬유 등 3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로봇 7560대의 확대 보급, 돌봄·의료 등 4대 서비스로봇 산업의 본격 육성, 그리고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로봇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발표는 제2차 기본계획(2014년)에 이은 제3차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다. 기본계획 이행에 따라 지난 10년간 로봇기술에 약 6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루어졌고 기술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 결과, 국내 로봇기술은 일정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로봇 밀도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이다. 또한, 국

제로봇연맹(IFR)의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로봇시장은 2017년 세계 3위 규모로 총 3만9732대를 판매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 로봇기업이 없고 제조업 등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로봇시장도 2017년 세계 3위라고는 하지만 약 4만1000대를 판매해 2위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판매량과 순위 모두 떨어진 수치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발전방안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정책방향으로 밝힌 이번 발전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바로 로봇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로봇산업화 전담은행'을 지정하여 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컨설팅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점이다. 로봇산업의 초기 자금 지원 수준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민간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 위주의 산업

생태계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로봇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방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로봇산업화 전담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제공이다. 소수의 전담은행을 통해 로봇기업 심사와 대출을 담당한다는 말인데 수많은 로봇기업 심사를 단지 몇 개의 은행이 맡아서 한다면 합리적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은행은 신용이 낮은 신생기업 대출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스스로 시장 수요나 성장 가능성 등의 정보를 가진 금융기관과의 매칭펀드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정보 형성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육성할 4대 로봇산업 분야를 설정한 부분도 아쉽다. IFR에서도 동일한 분야를 2025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로 꼽았다고는 하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로봇은 대부분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어 언제든지 성장 가능성은 바뀔 수 있다. 이번 발전방안의 목표 중 하나인 세계적인 스타 로봇기업 20개 배출이 비단 4대 로봇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로봇산업 발전 방향을 최대한 열어 놓고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정부는 작년 8월에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로봇수요의 전 산업 확대였다. 해양, 농업, 의료 등 융합형 로봇 기술과 제품 개발에 R&D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렇듯 특정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후주나 유럽연합(EU)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특화된 다양한 분야의 로봇산업의 로드맵 제공도 제도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로봇기업들의 방향설정은 물론이고 로봇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일종의 제도적 지원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로봇에 의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로봇산업을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공병호의 독서산책

"우리는 카폴레도 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 변화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얼마간은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자세나 마음가짐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로버트 터섹의 '증발'이다. 이 책엔 '모바일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목적이 늘어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 변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는 단명화, 디지털화, 비물질화 그리고 가상화를 '증발'이란 한 단어로 압축한 저자의 개념과 기술이 놀랍다. △무엇이 증발하는가 △텔레비전의 증발 △일거리의 증발 △교육의 증발 △기기의 증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 로버트 터섹 '증발-모바일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 디지털 퍼스트 시대 사라져가는 것들

됐다. 저자는 "우리는 기기, 제품, 회사, 직업 그리고 상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대체되며 영원히 사라지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서술한다. 한마디로 '디지털 퍼스트 사회'다. 행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소유하는 것 가운데 오로지 디지털 공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공간에 존재했던 물리적 실체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저자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증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증발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런 변화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우리가 점점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멈춰 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항하고 분노할지라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증발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제조, 유통, 소매,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증발이란 거대한 흐름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

고 있는 격렬한 저항과 분노를 증발의 시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위기뿐인가. 그렇지 않다. 구식 실물경제에서는 조금의 지분도 갖지 못한 신흥 벤처 스타트업들에는 거대한 금광지대가 발견된 것과 같다. 거대한 골드러시가 시작된 셈이다.

우버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 모델 하나를 만든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버는 자동차 소유라는 물리적인 것을 서비스라는 만질 수 없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왜, 손을 들고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있어야 하느냐'라고 저자는 묻는다. 에어비앤비는 아무런 물리적인 것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숙박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런 현상들은 증발 시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증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상품을 대신하는 정보다. 만질 수 있는 제품 대신 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당신은 시대에 잘 적응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독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증발은 멈출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교육, 노동, 기업이 바뀔 것이고, 정부 기관과 심지어 우리의 생물학적 육체까지도 그 변화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 분명한 방향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증발의 시대'라는 시각으로 자신과 조직과 나라의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기를 바란다. 날로 딱딱해지는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책이다. 공병호연구소장

## 이투데이, 말투데이

☆ 남강(南岡) 이승훈(李昇薰) 명인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일제강점기 교육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의 강연을 듣고 민족운동에 뛰어들어 오산학교를 세우고, 물산장려 운동 등 민족 운동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64-1930.

☆ 고사성어 / 관왕지래(觀往知來)  
과거를 봄으로써 장래를 미루어 안다는 뜻. 원전은 열자(列子) 설부(說符)편. "관운이 열자에게 말하길, 말이 좋으면 메아리(響)가 좋고 말이 나쁘면 메아리도 나쁘다. 키가 크면 그림자(影)가 길고 키가 작으면 그림자도 짧다. 명성(名聲)은 메아리이며, 키는 그림자이다. 그래서 말을 신중히 하면 조화를 이루고 행동을 신중히 하면 따름이 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나감을 보고서 들어움을 안다. 지나간 것을 보고 다가올 것을 안다. [觀往以知來]. 이것이 먼저 아는 이치이다."

☆ 시사상식 / 빅딜(big deal)  
'덩치가 큰 거래'라는 뜻의 합성 영어다. 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간에 대형 사업을 맞바꾼다는 뜻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첫 빅딜은 1998년 정부-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의 빅딜이 결의되고, 이어 삼성의 자동차, 대우의 전자 빅딜 원칙에 두 그룹이 합의한 것이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매정하다  
'무정(無情)하다'가 변한 말.

☆ 유머 / 공감 가는 버스 법칙  
간만에 좋은 노래가 나올라치면 꼭 안내방송이 나온다. 도로가 막 막힐 땐 어김없이 트리트가 나온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 기저수첩



이 꽃 들 유통바이오부/flowerslee@

## "아빠! 페도포비아가 뭐예요?"

결국 취소했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까지 '어린이 출입 금지'를 내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 혐오'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

식당, 카페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매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장내 소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배제하겠다는 것. 여기에

'노키즈존'과 짝짓는 단어가 바로 '맘충'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던 과거와 달리 페도포비아(pedophobia), 즉 아동혐오가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잖아도 저출산으로 유업계-아동복 등 관련 시장은 울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온화해졌다. 복합쇼핑몰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소비자를 적극 반긴다. 왜 개와 유대인이 포용되는 시대에 어린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걸까. 계간 '창비어린이' 2019년 봄호 '혐오의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서 김원영 변호사는 "아동혐오증은 우리 시대에 가장 노골적이고 그 해악이 저평가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차별 대상인 아이들이 권력자인 어른의 발인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초등성평등연구회 소속 이신애 교사는 "(현실은) 노키즈존을 옹호하는 아이, 스스로를 급식충이라고 칭하며 웃는 아이, '제가 맞을 짓을 하긴 했어요'라며 부모의 체벌을 변호하는 아이를 만들어낸다"고 우려했다.

"아빠! 왜 개와 유대인은 가게에 들어갈 수 없어요?" SBS '영재발굴단'에 천재화가로 출연한 11세 어린이 전이수 군이 직접 쓴 일기가 공개됐다. 전 군은 최근 '노키즈존'에서 겪은 일화를 전하며 나치 시대 독일 배경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극중 대사를 이같이 인용했다. 전군은 또 "어른들은 있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 그 어린이였다는 사실을"이라고 토로했다. 전군의 일기가 공개되면서 아동 스스로 인식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네티즌의 공감의 이어졌다.

실제 현실은 어떨까. 최근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엔제리너스의 점포 한 곳에서 '노키즈존'을 내걸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찬반 여론에 휘말리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룸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대표전화	(02)799-2600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팩스	(02)799-1003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구세주 아니다

지난해 3월 엘리엇에 이어 올해는 ‘토종’이라는 KCGI까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대표 기업들을 뒤흔들자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이들의 정체와 속내를 궁금해한다.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때문인 듯하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은 ‘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s)’다.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기성 자본이다. 이 펀드에 ‘행동주의’라는 선(善)한 ‘가면’을 씌운 인물은 ‘주주 행동주의’의 대부 로버트 몽크스(Robert Monks)다. 변호사, 사업가, 은행가, 정치가 등을 거쳐 1984년 미국 노동부 연금 국장이 됐다.

“기관투자자들이 모든 주요 회사 주식의 거대한 덩어리들을 갖고 있다. 경영진을 조용히 지지하거나 이들의 경영 전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됐다. 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총회 등에서) 안전을 제외하고 통고시키는 것이 기업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가 연금국장 시절 미국의 연금 관리자들과 가진 회동에서 한 말이다.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 잔물 배당, 대주주의 경영 횡포 등으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다. 이들은 중장기 발전 계획보다는 경영권 위협, 교체, 경영 간섭 등을 통해 과다한 배당을 요구한다.

흥미로운 것은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흔들 때마다 표 대결 판세를 가르는데

## 데스크칼럼

박성호  
산업부장



계 최대의결권자문기구인 ISS의 창업주도 몽크스라는 점이다. 199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해상충’을 문제삼아 ISS를 조사하자 손을 뗐다. 이후 사모펀드 베스타 캐피탈(Vesta Capital) 소유로 넘어갔다. 베스타는 1980년대 ‘기업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들이 주인이다. 사실상 선수와 심판이 한편인 셈이다.

지난해 5월에는 엘리엇이 불과 지분 9%만 가지고도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인 텔레콤 이탈리아(TIM) 이사회를 장악하는 파란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ISS의 역할이 컸다. ISS는 당시 “엘리엇이 추천한 이사 6명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 다른 주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엘리엇은 경영권을 쥔 뒤 “이제 모든 주주를 위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보장할 개선된 지배구조를 토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TIM 주가는 지난해 5월 7일 0.86유로에서 올 3월 20일에는 0.52유로로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원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도 의미심장하다.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경영에 개입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은 전년

대비 18.1%, 투자도 23.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1.0% 쪼그라들었다.

22일 불행 중 다행으로 현대차-현대모비스 주주에서는 엘리엇이 완패했다. 남은 대표 기업은 한진그룹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KCGI의 주주안건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행동주의 펀드 열풍을 타고 국민연금과 시민단체들은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가 이들에게 물컵 갑질 등의 발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도덕적 일탈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일탈=경영권 박탈’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는 없다.

경영진의 일탈로 인해 기업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항공 주가는 물컵 갑질 비난이 컸던 지난해 3월 3만4000원대에서 이달 22일 3만2000원대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 역시 2400에서 2100 선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보기는 힘들다. 대한항공은 2015년 3분기부터 14분기 연속 흑자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사태, 9·11테러,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정부 지원금에 기댄 적이 없다.

시민단체나 행동주의 펀드의 여론몰이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주주행동주의를 주창한 로버트 몽크스는 만년(晩年)에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에 직접 나서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로 선회했다.

vicman1203@

## 사설

# 또 ‘밑 빠진 독 물 붓기’ 추경 만능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구체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경기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발(發)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국내총생산(GDP) 0.5% 이상 규모의 추경을 권고했다.

논란이 적지 않다.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및 대량 실업 등이다. 미세먼지가 재난임에는 틀림없지만, 재정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다. 국내 산업구조, 탈(脫)원전 등 에너지정책, 중국과의 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해법도 분명치 않은 환경 현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올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벌써 추경 카드가 나온 것부터 비정상이다.

또다시 추경 만능(萬能)의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다. 추경이 필요해도 어떤 규모로 편성해 어디에 얼마나 쓰고,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미세먼지 대책에 IMF 권고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10조 원 안팎 규모로 예상된다. 결국 경기대책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문제는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느냐에 있다. 경기부양은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

이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이고, 투자와 고용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월 실업자가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도 4.7%에 이르렀다. 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16.6%나 줄어들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성장이 본격화한 1971~197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조 원, 작년 3조8000억 원의 추경이 집행됐다. 본예산에 더한 ‘일자리 추경’이었다. 그럼에도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알바성’ 공공일자리는 늘었을 뿐, 민간 일자리는 계속 쪼그라든 통계만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정책 실패의 요인이 가장 크다.

추경 편성은 자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진다. 국가부채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의 확장 재정과 공공부문 확대, 재정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 지출 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추경이 남발되지만, 경제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의 소모성 지출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잇따른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활성화하지 않고,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실패했다. 경제정책의 근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추경으로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

## 설계진의 사정 24시



사회경제부 차장

# ‘쇼(show)통’ 아닌 ‘소통’!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설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냥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냥 발표해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냈다.

박 시장은 “이게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동안 쪽 추진해 왔던 일이다. 장관님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다”고 반박을 하며 서둘러 매듭을 지었지만, 박 시장의 발표 이전에, 장관과 시장이 조금만 소통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 광진구는 18일 박 시장이 구청장들과의 면담에서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이 해당 지역의 우월한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핵심 정책 연구과제로 착수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지하철 2호선 지하화는 사업의 경제성, 자원 문제로 당장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에 대해 추진 시기 등을 특정해 (자치구들과)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후 수정 자료를 통해 “아직 추진 시기

등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바꿨다. 이는 광진·성동·송파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2호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는 광진구청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내용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발언 취지는 지하철 지상 구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권 단절 등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며 곧바로 지하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견강부회(牽強附會)’라는 사자성이 있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도리나 이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합당하다고 우기는 꼴이니,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정리해 발언해야 한다. 의도가 드러나는 즉흥적인 말은 피해야 한다. 자칫 서울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j78@



## 마약(麻藥)

마약 청정지대로 여겨던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마약은 강한 습관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 사회에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처음부터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마약은 ‘麻藥’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저릴 마’, ‘약 약’이라고 훈독한다. ‘저리다’는 본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함으로써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라는 뜻이다. 저린 증상이 오래되면 癡癡를 일으킨다. ‘癡’ 또한 ‘저릴 비’라고 훈독하는 글자로서 癡癡는 “신경이나 근육이 형태의 변화 없이 기능을 잃어버림으로써 감각이 없어지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저림 현상과 마비 현상이 중추신경계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환각성과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하며 기분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이 바로 마약이다. 그러나

한 번 중독되면 마약 없이는 살아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심신이 모두 망가져 폐인이 되고 만다. 참으로 무서운 약이다.

요즘은 이른바 ‘떡자골목’을 지나다 보면 ‘마약’이라는 말을 넣은 간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마약 불고기’, ‘마약 치킨’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중간에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다음에도 반드시 또 먹고 싶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인데 보는 순간 섬뜩함이 느껴진다.

마약은 결코 아무 데나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일상으로 먹는 먹거리를 마약에 비유해 선전하면 자칫 마약을 먹어도 되는 약, 심지어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약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마약,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대중 광고에 버젓이 사용되는 현실이 황당하다. 반드시 제재해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창립 120주년

우리금융그룹

# LEGEND, TREND가 되다

고객과 함께한 120년,  
우리가 만들면 미래가 됩니다



우리은행